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2007.02



<제목 차례>

1. 연구 배경	1
1-1 사회적 배경	1
1-2 문화정책적 배경	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2-1 연구의 목적	7
2-2 연구의 범위	9
3. 성남문화통화제의 이해	11
3-1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제도의 결합으로서의 문화통화의 성립가능성	11
3-2 지역통화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16
3-3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 분석	22
3-4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23
3-5 성남문화통화제의 개요(안)과 운영원리(안)	25
3-5-1 성남문화통화제 개요(안)	25
3-5-2 운영원리(안)	27
3-6 국내외 관련 사례	28
3-6-1 지역통화의 유형	28
3-6-2 지역통화의 운영 현황	28
4.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분석	29
4-1 성남문화재단의 자원 분석	29
4-2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 분석	33
4-3 성남시 지역통화 사례 분석	40
4-3-1 사례	40
4-3-2 함의와 고려사항	41
5. 성남문화통화제 모델 제안	42
5-1 재단주도모델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를 중심으로	42
5-1-1 모형도	42
5-1-2 기본흐름도(안)	42
5-1-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42
5-1-4 사업의 내용	43
5-1-5 추진체계	47
5-1-6 추진전략	48
5-1-7 2007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48
5-1-8 고려사항	48
5-1-9 예산	49
5-2 재단지원모델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49

5-2-1 개념도	49
5-2-2 기본흐름도(안)	50
5-2-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50
5-2-4 사업의 내용	51
5-2-5 추진체계	55
5-2-6 추진전략	56
5-2-7 1차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56
5-2-8 고려사항	56
5-2-9 예산	57
5-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 응용형 모델	58
5-3-1 개념도	58
5-3-2 기본흐름도(안)	58
5-3-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59
5-3-4 사업의 내용	59
5-3-5 추진전략	60
5-3-6 고려사항	60
6. 성남문화통화 활성화 추진전략	61
6-1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쟁점	61
6-1-1 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민의식 미성숙	61
6-1-2 적정 재원 규모 산정의 어려움	61
6-1-3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61
6-1-4 공공부문의 문화적 방향에 대한 개입과 거액 거래자의 시스템 장악 가능성	62
6-2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향	62
6-2-1 적정재원마련 및 현실적 운영계획 수립	62
6-2-2 단계적 접근	62
6-2-3 성남시의 의지	63
6-2-4 성남문화재단의 주도적 역할	63
◇ 참고문헌	64
■ 부 록.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65

<표 차례>

표 1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차이	11
표 2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간 제휴의 기대 효과	14
표 3 국내 사례 현황(1999년 10월 현재)	16
표 4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18
표 5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	18
표 6 지역통화제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19
표 7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 분석표	22
표 8 문화예술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에 따른 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24
표 9 성남문화통화제 개요	25
표 10 성남 문화예술 자원 현황	34
표 11 성남문화예술단체 현황	36
표 12 커뮤니티의 성격	37
표 13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37
표 14 문화클럽의 요구사항	38
표 15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44
표 16 문화통화 거래절차	46
표 17 문화통화 거래등록양식 예시	47
표 18 문화통화 거래내역 조회 예시	47
표 19 재단주도형 문화통화제 1차년 운영예산	49
표 20 광명시 문화통화 ‘그루’ 통장 양식 예시	51
표 21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52
표 22 문화통화제 운영 대상군별 지원가능 커뮤니티	53
표 23 단위거래등록소 회원교육 의결사항 체크리스트	54
표 24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사업시행 1차년 예산	57

<그림 차례>

그림 1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 생태계의 육성	5
그림 2 문화통화제의 확장모델	15
그림 3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 개념도	31
그림 4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개념도	42
그림 5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흐름도	42
그림 6 문화통화제 운영 추진 체계	48
그림 7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개념도	49
그림 8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기본 흐름도	50
그림 9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세부 흐름도	50
그림 10 통장기장방식 예시 : 광명지역통화 그루	55
그림 11 재단지원문화통화제 추진체계도	55
그림 12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개념도	58
그림 1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사업 흐름도	59

1. 연구 배경

1-1 사회적 배경

○ 저성장 위험사회에 대한 주체적 대응 필요성

- 한국사회는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량의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고용 불안정,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향후 진행될 한미 FTA 등은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 발전 자체가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유대의 해체와 공동 가치의 무력화는 전사회적인 위기감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불확실성은 개인의 생존 문제를 절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사회’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저성장 위험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와 모델 구성을 통한 제 3의 대안이 필연적이다.

- 제 3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대 국민경제와 글로벌한 경제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관계성을 재구축하여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공공성을 해체하여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새로운 연대와 유대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시장’의 형성을 위한 대안적 노력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사회시장이란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조직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을 축적하려는 커뮤니티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¹⁾. 기존의 시장은 가격경쟁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원리를 절대적인 준거로 정당화하였지만, 시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생산할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척도로 각 개인과 집단의 고유성을 침해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환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통화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정통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적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 지역 단위의 사회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부응하는 실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지역통화의 문제의식은 ‘저성장 위험사회’의 문제들을 대면하면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자구적이고 자율적인 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지역통화 시스템의 작동은 지

1) 사회시장 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마즈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사회시장 형성에 관한 기본 조사연구],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2006, 29-38쪽 참조.

역사회의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여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로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실천에 의해 확보하려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결론적으로 지역통화 전략의 중요성은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연대의 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성있는 ‘안전사회’의 가능성을 내놓는다는 데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육성”²⁾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사회적 요구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한국사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비사회로 이행한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차원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진전, 경제적 차원의 3저호황 국면의 전개, 사회적 차원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이어진 전반적인 사회적 자유도의 증가는 급속한 소비주체의 형성이라는 흐름을 형성한다. 레저에 대한 관심, 자기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글로벌한 관심사의 형성 등은 바로 이러한 소비사회로의 진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후 한국사회는 소비사회적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사회적 요구와 충족 수준 사이의 괴리가 확장되어 한국사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결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문제해결력의 부재라는 문제를 여실히 노정하게 된다.

- 특히 사회적 양극화는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정부는 사회적 정책 분야에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예산 투입을 늘려나가지만 그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대중적 요구와 정부 주도의 실행 시스템 사이의 괴리는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식의 민영화, 재단 설립, 위탁 관리 등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지탱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적 설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효율화 논리는 공공성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 문화정책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문화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절대 빈곤을 벗어나면서 시민들은 문화적 향유, 문화적 접근, 문화적 환경에 대한 욕구와 권리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공간인 도시의 경우에서도 문화적 쾌적성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팽

2) 김형용, [한국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2쪽.

창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수준높은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향유 수준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삶의 제 측면에서 문화적 기준을 요구하는 욕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팽창하고 있는 문화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창의한국>이라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로드맵을 통해 문화의 범위를 광의로 확대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입안한 바 있고,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 지역문화, 도시공간, 문화복지 등의 새로운 정책 과제가 공공문화정책의 영역 내로 확장된 바 있다.

- 사회적 공적 서비스는 국가 수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준의 정책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공적 서비스의 질이 시민의 만족 정도와 직결된다. 특히 문화를 통한 도시 관리의 중요성은 도시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도시의 문제의식의 확장은 도시정책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 하지만 문화도시의 구체화는 지역사회가 활력을 띠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핵심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과정이라는 문화도시화의 전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과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사회적 시스템 설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통화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설계를 시민주도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계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모델 수립을 위한 지역 스스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1-2 문화정책적 배경

○ 지역통화제도의 활용을 통한 문화정책의 효율화 필요

- 도시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요구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도시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단순히 욕구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 내 순환 구조를 통해 자립적인 기능을 회복해 가는 방안의 설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지역 통화제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문제의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제도는 각각의 조건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통화제도는 활동과 실천 영역에서 이미 그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하면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지역통화제도는 거래 내역에 따라 이미 교육통화, 복지통화 등의 형태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통화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도 시 정부 등의 지원모델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 성남문화통화 모델 개발이라는 과제 역시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내 개인과 단

체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문화행정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문화적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지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지역의 문화적 주체를 형성하며 지역 주체들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 물론 지역통화제도의 선택적 활용은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지역통화’제도의 ‘문화통화’로의 활용은 후술하겠지만 그 선례가 많지 않고, 더욱이 공적 기관에 의한 통화 제도의 도입은 성공적인 활용 케이스가 매우 드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지역통화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제약 요소는 모델 개발과 실행 전략 도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제도의 창조적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지역통화의 문화정책적 활용은 기본적으로 시행주체와 대상이라는 문화정책 상의 이원적 구조를 해체하여 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시도로서 위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용 상의 문제에 대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면서 현재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단계 설정과 모델 개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효과적 지원 모델의 필요성

- 성남시는 한국사회의 도시 개발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로를 겪어 왔으며, 이 결과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생활의 격차가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소이다. 한편으로는 분당, 판교 개발을 통해 한국사회 부의 벨트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도시의 경우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잠재적 박탈감이 잠재화되어 있다.

- 성남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이다. 따라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정책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시 자체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성남문화통화의 도입은 ‘문화’를 통한 도시정책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의미 외에도 문화통화의 시행을 통해 성남시가 안고 있는 ‘단절’을 극복해가는 공공정책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통해 문화정책을 전문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남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외에도 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 예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재배치하여 문화적 지원 모델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 특히 성남시와 문화재단은 2006년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5대 문화정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대 문화정책 사업은 ‘문화도시 정체성 구축’,

‘창작활동 진흥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문화통화 시스템기반 조성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문화도시 구축을 주민의 창조적 네트워크 활동과 공간의 문화예술적 재생 작업 등을 통해 문화도시의 실체를 구축해간다는 전략을 표현하고 있다.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사업 전략은 다시 말하자면 예술 창조, 문화 매개활동, 시민의 향유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 사이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과제는 시의 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의 표현인 셈이다.

- 이는 이미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주목했던 차원인 바, 그 의미를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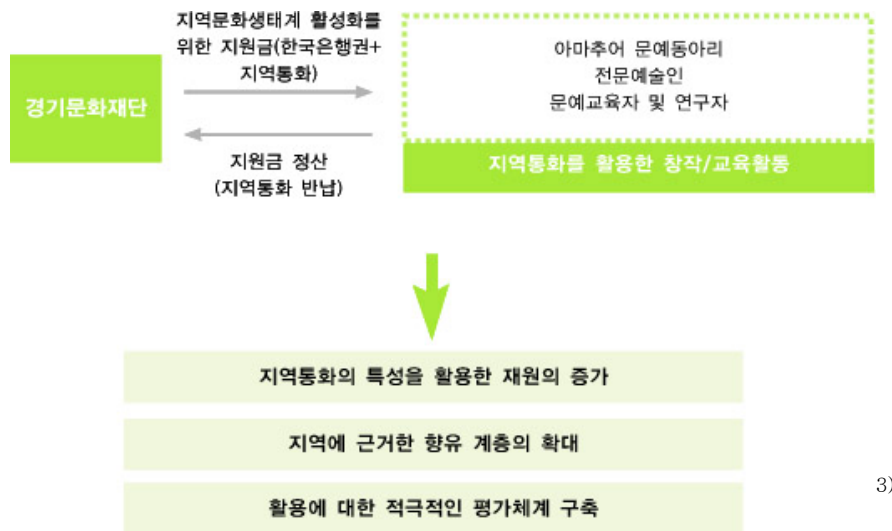


그림 6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 생태계의 육성

3)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2004, 35쪽.

- 이 과정에서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은 정책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 지원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예술향유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도입은 도시 내에서 작동하는 커뮤니티 솔루션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밀도를 증가시켜 스스로의 자립 패턴을 만들어 내 공동의 경험을 도시의 윤택한 공동자산화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는 차원에서 배치되어 있다.
- 이와 같이 문화통화 모델의 도입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과 전략이 동반된다면 문화예술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문화통화제도의 도입은 문화도시 사업을 주민의 창조성 개발과 연관시켜 구체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적 포지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1 연구의 목적

○ 지역통화 모델의 활용 가능성 도출

-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역 통화는 주로 시민 기반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즉 지역 통화는 신뢰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 사회의 존재, 혹은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적 위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지역통화 제도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에 잠재된 자원을 연결하여 상호 협력과 상호 부조의 관계를 창출하는 시민 영역의 제도이다.

- 성남 문화통화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통화 모델에 대한 창조적 변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통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차원보다는 성남의 주객관적 환경 분석을 통해 문화통화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차원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재단 내에서 문화통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은 이미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된 바 있다. 문화통화 관련 연구는 김해보씨의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와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개념적 모델 도출을 통한 문화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 그럼에도 문화재단 수준에서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가장 주요하게는 정책적 의미 도출에 방점이 놓여져 있어 실행 모델로의 구체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지의 조직화라는 차원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지 않아 추상적 모델 개발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남 문화통화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해결을 위한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며, 해결을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의 구체상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목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 성남 문화재단의 주도성을 전제한 역할 모델 수립

- 문화통화 도입 초기에 있어 통화 모델의 주체와 역할을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체 설정이 가능해져야 그에 합당한 모델 구성과 역할 안이 작성 가능하

기 때문이다. 성남 문화통화 도입 방안 연구에서는 현실원칙에 근거하여 성남문화재단을 초기 주체로 설정한다.

- 물론 성남시에서도 초기적 형태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가동된 바 있고 현재도 가동 중이다. 성남시에서 행해진 여러 사례 중에 여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으로는 명확하다. 하지만 연구를 실행 작업화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 도입 초기에서는 분명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는 대상을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초기적 역할 설정에서 주도성을 전제한다.

- 이 연구는 성남 문화재단을 주체로 설정하고 문화재단의 자원 목록과 활동 내용을 재구성하여 시행 가능한 역할 모델을 산출한다. 역할 모델 수립 내용은 통화 활성화의 전제인 ‘신뢰의 담보 역할’,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역할’, ‘초기 운영 재원 마련’, ‘활성화를 위한 시 행정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이 연구는 성남시의 주객관적 환경 분석과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분석을 통해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추출한다. 이 몇 개의 모델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자원 및 사업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구성된다. 문화도시 구상 내에 있는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 사업’,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축제 지원 사업’ 및 ‘예술 창작 지원 사업’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단계적 진화 모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개의 모델은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다. 분명하게 문화통화 모델은 주체의 의지라는 요소와 결합되어서만 실행모델 및 실행계획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 문화통화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및 정책 방향과의 조율 및 조정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문화도시 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사업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화통화 모델과의 결합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수가 있다.

○ 문화통화 실행모델 및 실행계획 제시

- 문화통화의 활성화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통화는 법정통화에 익숙한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장기간의 이행과정을 전제하며, 새로운 관계 방식에 대한 주체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진화할 수밖에 없기에 기계적인 결합과정이 아닌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 진화할 수밖에 없는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통화 모델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장기 전망의 수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나가는 일이 필수적이다. 즉 장기 전망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실행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실

행 의지를 전개해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모델과 계획 수립이라는 과제에 집중한다.

- 따라서 핵심적인 연구 목적은 문화 통화 실행모델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실행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미 차원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어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 자원, 조직 등의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실행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일정, 자원, 조직 등의 요소 사이에 관계성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자원의 투입과 산출 효과가 명확하고 별도의 작업 없이 실행 기안이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문화통화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07년도 시범사업에 적용 가능한 거래 품목 및 교환 형태를 도출하는 목표를 갖는다. 성남 문화재단이 '문화통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문화통화 시범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조정 내역 및 투자액수, 통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 협조 사항 등을 명시한다.

2-2 연구의 범위

○ 연구의 경과

- 이 연구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통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지역 기관단체 간담회(2006. 5. 23)

참가인원: 6개 기관 11명

내용: 성남문화통화 도입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의견 수렴

◦ 문화통화 선진지 연수(2006. 8. 22- 8. 26)

참가인원: 7개 기관단체 10명

내용: 일본의 지역통화 현장 탐방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6. 7- 2006. 9)

조사대상: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401명

조사내용: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저해요인, 지역 현안, 활동 실태 등

◦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2006. 11. 1- 12. 30)

연구대상: 태평 4동 1318 해피존 문화통화 사업

연구내용: 나눔라디오(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2007. 1. 31)

참여대상: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연관 단체 40여명

논의내용: 시안으로 작성된 성남문화통화 모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 성남문화재단은 문화통화 도입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역 내에서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본 연수 결과집을 발간하였다. 이 외에도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책임자: 안성아),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전수환)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에 대한 기본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 이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바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사랑방 문화클럽 조사와 같은 연구조사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실행 모델을 1차적으로 구축하여 성남의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단체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실행 계획을 완성한 것이다.

○ 연구 방법과 범위

-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성남문화재단과의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에서 도입 가능한 모델에 대한 상을 점검하였다. 이 외에 연구진 모임을 통해 그 동안의 지역통화의 경험 내용을 분석하면서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의 결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이 과정에서 현재의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문제를 공감하고 문화통화 방식의 구체적인 장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의 결합 가능성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의 의지와 자원에 대한 인터뷰 및 공동회의를 실시하였다.

- 연구진에서는 문화통화 모델의 구체화를 위해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사랑방 문화클럽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사랑방 문화클럽, 지역통화 도입 사례,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계획 등을 점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연구진에서 개발된 몇 개의 모델에 대한 지역 유관기관 관련자들과의 ‘대화모임’ 외에도 성남문화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모델에 대한 운영 전략 판단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 이 결과로 이 연구에서는 1, 2장을 통해서 이 연구의 위상을 포지셔닝하고, 3장에서는 성남문화통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도입을 위한 문화정책적 의미를 자리매김한다. 4장에서는 성남시의 주객관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자료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서 검토하고,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모델과 실행계획을 3개의 모델에 따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성남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추진방식을 제안한다.

3. 성남문화통화제의 이해

3-1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제도의 결합으로서의 문화통화의 성립가능성

○ 지역통화란?

- 지역통화는 법정통화 개념과 대비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분	법정통화	지역통화
발행	중앙은행 또는 지방 정부가 인정하는 발행기관이 일정량 발행	시스템 참여자들이 거래시 필요에 따라 무한정 발행
사용지역	법정통용지역 (전국)	커뮤니티(일정지역) 범위 내
활용범위	시장거래 및 국가 상대 거래	가입회원 간의 거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	이자 발생 현금 가치의 저축	이자 없음 거래에 따른 관계의 저축
경제외적 의미	국가 시스템 유지 및 통제의 수단	공동체의 철학적 목표 달성 수단

4)

표 1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차이

-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통화는 일정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되는 회원제 통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화의 일차적 의미는 공동체 내의 교환 거래와 회원 간 대면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가시화해가는 유효한 통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 구체적으로 지역통화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 내에서 유무형의 재화가 교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시장’의 한 유형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나 공동체는 생활에 기초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또 많은 수의 인재(지식, 기술, 경험)나 자연, 문화의 자원이 있다. 이것은 모두 ‘현장의 지식’으로서 흩어져 있다. 수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문제’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 가운데 문제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협력과 관계성을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⁵⁾이 커뮤니티 해결책에 해당한다.

- 이 때 지역통화는 통화와 교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 자본과 법정화폐가 가져오는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원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과 호혜적 교환에 근거하는

4) 김해보,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쪽.

5) 마즈다 시 정책심의실, 앞의 자료, 33쪽.

교환, 사회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렇기에 지역통화는 “시장경제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지역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거래대상으로 바꾸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힘을 이끌어내어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로움을 가져다주는 가능성”⁶⁾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지역통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과 특징을 갖는다.⁷⁾
 - 이자를 산출하지 않는다. 이식의 수단이 되지 않고 교환과 유통을 위해 사용된다.
 - 일정한 지역(또는 범위)에서만 유통된다.
 - 지역의(또는 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운영한다.

○ 지역통화의 유형

- 지역통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통화는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제도인데, 이는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자구적 대응으로 시도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⁸⁾.

- 지역통화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⁹⁾.

- LETS: 전 세계 지역통화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현금 사용 없이 장부 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Time Dollar: 일종의 시간 투입에 대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봉사 은행 개념이다.

- local money와 community currency: 독자적인 화폐(종이, 칩, 전자머니)를 발행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유통하도록 고안된 화폐형 지역통화이다.

- 보완통화: 특정한 커뮤니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행된 통화를 말한다.

- 이 외에도 지역통화의 유형은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매우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통화운동을 조망하는 관점은 크게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지역통화운동을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과 생태주의 경제론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관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¹⁰⁾.

6) 위의 자료, 43쪽.

7) 위의 자료, 43쪽.

8) 지역통화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김형용, 앞의 논문, 17-25쪽 참조.

9) 지역통화 유형은 마치다 시 정책심의실 자료의 46-48쪽과 김형용의 논문의 13-17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 현대 세계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적 구조가 불가능하게 전개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역통화를 인식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지역통화가 자립경제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재구조화를 시민레벨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생태주의 경제론 관점: 현대 세계의 위험의 배후에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문제의식에 기대어 좀더 근본적인 대안적 실천의 맥락에서 지역통화를 이해한다.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다양화를 촉진하고 국가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세계화와 국가주의에 대한 대안경제의 구성 맥락이 강조된다.

- 이와 같은 지역통화의 다양한 유형 및 종류는 지역통화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가치론적인 판단을 우회하면 지역통화의 창조적 적용의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선행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지역통화의 문화통화로의 전환 가능성이나 지역통화 발행 주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여지를 각 사례는 제공하고 있다.

○ 문화통화의 가능성

- 지역통화와 문화통화는 동일 수준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교육통화의 사례를 보면 지역통화의 문제의식 내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거래 유통화하는 것을 교육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통화는 지역통화의 일반적 유형을 '문화' 거래와 유통을 통해 구성하는 통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문화통화의 가능성은 “기존의 일방적인 문화거래 방식보다 문화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친밀감 증대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통화의 문화거래 등록 행위는 지역 내 문화 정보의 간접 제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통화거래는 직간접적으로 주관적인 정보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부 현금 보조의 효과로 수요자의 실질적인 심리적 거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반적인 문화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¹¹⁾.

- 다음의 표는 문화예술과 지역통화를 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10) 김형용, 앞의 논문, 27-39쪽 참조.

11) 경기문화재단, 위의 보고서, 57쪽.

지역통화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대 효과	문화예술 거래 도입을 통한 지역통화의 기대 효과
(1)문화예술 거래의 촉진 -문화향수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장벽 완화 -문화예술 마케팅의 타겟 고객 확보 -문화예술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 -문화예술인의 실업 해소 효과	(1)커뮤니티 내 거래 활성화 품목 제공 -상품 시장 경제의 폐해가 없는 품목 -회원의 문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비재
(2)문화생태계 육성 -문화예술 시장의 성장 기반 육성 -자원의 배분에 대한 지지 기반 육성 -문화예술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 -문화산업/마케팅 기반으로 활용 가능	(2)거래의 광역화에 적합한 품목 제공 -지역통화의 철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광역 거래에 적합한 품목 -Inter-LETS 거래 시 환전 기준으로 적합한 품목
(3)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자원 동원 -문화자원의 확충 효과 -지역간 문화 불균등 구조 개선	(3)거래 비용 충당 가능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예산 활용
(4)공공 자원 배분에 대한 당위성 확보 -문화예술 예산 확보의 지지 기반 확대 -문화, 교육, 사회복지 정책의 시너지 효과로 공공 자원 배분의 정당성 부여 -소비자의 높은 참여도를 활용하여 대안적 지원 평가시스템으로 활용가능	
(5)문화민주주의 정책 과제 달성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교육, 복지 등 타 정책과의 연계 효과	
(6)문화복지 정책 과제 달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소외층 확대에 대한 대응책 -전반적으로 높아진 문화복지 욕구충족 -문화예술인의 증진 복지 효과	
(7)문화재단의 새로운 정책 수단 제공 -독창적 사업 방식으로 재단 정체성 홍보 -현장과 가까운 사업 수행 방식	

12)

표 2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간 제휴의 기대 효과

- 이 표에서 정리되었듯이, 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모델 도입은 문화통화 발행으로 인한 본래적 효과와 문화재단의 정책수단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부가적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문화통화 도입은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증진하여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본래적 의미를 활성화할 수 있다.

12) 앞의 보고서, 72쪽.

- 현재 장르예술의 위기는 예술의 소통과 실현의 위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예술가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통화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이나 복지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외에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더 나아가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공공지원 모델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부가적 효과를 통해 문화재단의 새로운 지원정책 모델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통화는 상호 보완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휴의 대상으로서 신설 문화재단의 정책 수단으로 적극 도입”¹³⁾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문화통화의 성공적 활용이 정착되면 문화통화 운영 모델은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문화통화 운영 모델은 사회정책 분야 내로 확대 가능하며, 도시 내에서 이러한 연계 구조가 확장되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정착시키는 주요한 매개로 기능할 수가 있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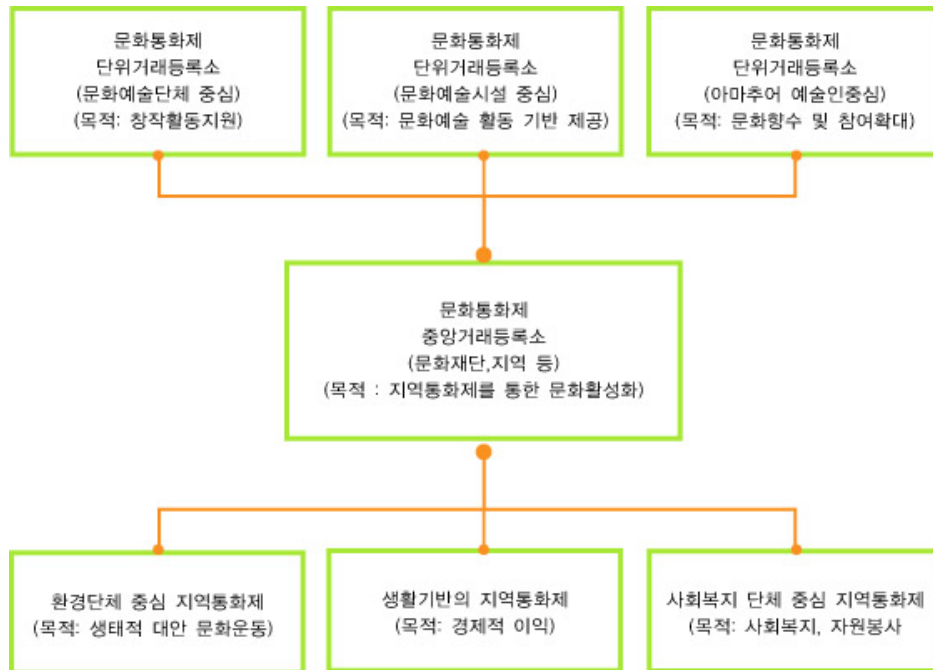


그림 7 문화통화제의 확장모델

- 위의 모델은 문화통화 모델이 확장되어 환경, 지역경제, 복지 차원의 연계 모델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모델의 정립 및 성공적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13) 경기문화재단, 72쪽.

3-2 지역통화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 국내 지역통화의 현황 분석

- 문화통화의 성공적 운영 모델 도출을 위해서는 그 간의 지역통화 경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지역통화 모델은 그 의미의 자체 충족성 때문에 많이 시도 되었지만, 일정한 규모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국내의 경우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통화 현황 분석을 통해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하는 것은 문화통화 운영 모델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다만 1999년에 조사한 연구 논문에 기초해서 개관적인 현황과 문제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1999년 10월 기점의 자료에서 제시된 국내 지역통화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통화제도명	운영단체	비고
미내사 FM	시민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1998년 3월 운영시작. 회원수 447명. 월 교환거래 건수 10-20건
서초품앗이	서초구청	1999년 2월 운영시작. 회원수 283명. 월 교환거래 건수 3건 미만
대구 DN 지역통화	대구 중구청	1999년 4월 운영시작. 회원수 500명. 교환거래 건수 3건 미만
송파 품앗이	송파구청 자원봉사센터	1999년 8월 운영시작. 회원수 101명. 월 교환거래 10-20건
기술 도구 은행	봉천 10동 종합사회복지관	1999년 2월 운영시작. 회원수 339명. 월 교환거래 건수 10-20건
인디텔 레츠	인천지역정보네트워크 인디텔	1998년 5월 운영시작.
민들레 교육통화	교육관련 출판사 “민들레”	1999년 1월 운영시작. 회원 수 70여명. 14)
작아장터	녹색연합 출판사	1999년 3월 운영시작. 회원 수 60여명.

표 3 국내 사례 현황(1999년 10월 현재)

※ 기타 추진 중 : 열린 고양시민의 모임, 인천연대, 대전 빈들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여수 동백 신협,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인천 카톨릭 환경연대, 강서구청, 동작구청, 대전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과천시민연대 등 20여 단체

- 이 표에서 도출되는 바는 규모에 있어 500명 이내의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거래 건수 역시도 많은 경우가 월 평균 10-20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14) 김형용, 앞의 논문, 73쪽에서 인용.

운영 시기가 98년 내지 99년으로 조사되어 장기간의 실천 경험을 내재한 사례가 별반 없다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이미 LETS 통화의 경험에서도 입증되듯이 소규모의 지역통화 사례는 운영 효과에 비해 운영비용이 커지는 문제점이 크고,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 사례에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지역통화 유경험자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지역통화 운영 자체가 소규모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실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지역통화가 소규모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은 되지만, 운영비용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물론 지역통화의 내재적 의미가 인간 사이의 관계와 연계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문제를 큰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찾는 것은 지역 통화의 성공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 장애요인과 해결책

- 지역통화의 장애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내사 fm, 서초 품앗이, 송파 품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의 4가지 사례를 심층분석한 김형용씨의 연구는 지역통화 제도의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교환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초기에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통화를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어려움은 법정통화 사용습관으로부터의 단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자신들이 마이너스부터 거래를 시작하기보다 저축해서 필요한 만큼 지역화폐를 모아둔 후에 필요 품목을 구입하겠다는 현금사용습관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통화의 대가성이 사상된 채 주는 사람은 단지 자원봉사 마인드만으로 접근하고, 받는 사람은 복지혜택과 같은 묘한 수치심과 거부감을 갖는 형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해와 인식의 결여는 지역통화의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사례 연구에서 거래 품목이 주로 교육서비스가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거래품목에 대한 구성비이다.

구입희망(N=70) 구성비(%)	품목	제공가능 (N=121) 구성비(%)
41.4	교육 및 교습서비스	32.2
20.0	전문서비스	12.4
20.0	가사서비스	11.6
14.3	단순노동서비스	19.8
12.9	주택 수리 서비스	9.1
12.9	식품	3.3
12.9	생활용품	4.1
8.6	의복	5.8
7.1	의료서비스	7.4
10.0	기타	15.7
160.0	계	121.5

15)

표 4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 이 표에서 드러나듯, 교육 및 교습서비스가 단연 압도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양상은 참여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상황과 상관적이다. 내용적으로도 교육 서비스는 외국어 교습이 압도적이며, 피아노 및 예체능 교습의 내용이 주류를 차지한다.¹⁶⁾

-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환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미내사 fm, 서초 품앗이, 송파 품앗이, 봉천10동 기술도구은행의 참여자 650여명으로 대상으로 하여 회수된 215부의 결과에서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	N	구성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52	37.1
교환거래의 절차가 번거러워서	11	7.9
필요한 품목/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39	27.9
품목/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해서	15	10.7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안심할 수 없어서	6	4.3
제공자가 너무 먼 지역에 있어서	14	10.0
지역화폐 가격이 맞지 않아서	3	2.1
계	140	100.0

17)

표 5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

15) 김형용, 앞의 논문, 89쪽에서 인용.

16) 이와 같은 내용은 외국의 지역통화 거래 내용과는 차별적인 것이다. 영국과 호주의 레츠 시스템에서는 생활용품과 가사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재와 단순노동력 구입의 가격이 높아 재할용품의 사용 및 물물교환에 익숙할 뿐 아니라 이웃집 일 돕기 등 비공적 빈번한 이웃간 서비스 교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우리나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 대신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습서비스는 이미 사교육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다(김형용, 앞의 논문, 89-90쪽).

N= 210

응답 내용	응답자 수	구성비(%)
홍보 및 인식의 부족	134	63.8
이용 거래 품목의 부족	59	28.1
적은 회원수	25	11.9
등록 품목의 비전문성 또는 낮은 신뢰성	36	17.1
거래 상대방의 신뢰 정보 부족	75	35.7
거래 절차의 번거로움	20	9.5
거래 회원의 원거리 분산 분포	44	21.0
계	393	187.1

18)

표 6 지역통화제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 크게 보자면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필요한 품목과 서비스의 제한, 신뢰의 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이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통화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적 요건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염두에 두면 문화통화의 장애요인은 크게 몇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 경험적 인식의 부재: 지역통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 부족 문제는 지역통화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해 부족 문제는 주민들에게 익숙한 법정통화 사용 습관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단순히 지역통화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 보다는 지역통화를 거래하면서 얻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인식의 부재라는 측면이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라는 거래 아이템의 문제: 조사결과에서 주된 거래품목은 교육서비스와 가사서비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래 아이템은 그 자체로서는 특정 집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뿐 지역통화 자체 내에서 핵심적인 거래대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 서비스 품목의 제약: 지역통화는 제반 조건 상 특정 아이템과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와 교환가능한 서비스 사이의 편차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약은 지역통화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화제도의 의미와 장점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제약됨으로 해서 지역통화의 장점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절차의 번거로움: 지역통화는 주로 대면 거래 혹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

17) 김형용, 위의 논문, 97쪽에서 인용.

18) 김형용, 앞의 논문, 98쪽에서 인용.

역통화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하는 장치를 가지기 마련인데, 지역통화의 거래 방식은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수반하게 된다. 지역통화의 장점과 절차의 번거로움은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통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소규모로 한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지역 통화에 대한 신뢰 문제: 지역통화에 기반한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적, 상호호혜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화에 기초한 사회시장은 신뢰, 규범, 공동체의 형성 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통화 발행 주체 및 지역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역통화 시스템 구축은 큰 장애요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문화통화제를 도입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통화 모델을 초기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의 성립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통화제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험적 인식의 확대 방안: 초기 모델 구축에 있어 운영주체는 문화통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화통화 거래방식에 대한 쉬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모델에서는 사용빈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적인 홍보와 교육 이외에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통화 도입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연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화통화를 거래하는 의미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문화 관련 네트워크의 능동적 확충: 문화통화의 경우 현실적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 관련한 사회적 필요가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조건 및 문화클럽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문화통화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과 시민 레벨에서 문화통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통화의 거래가 일정 규모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관련자 및 관련 거래품목에 대한 사전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운영 사무국은 문화 관련 네트워크를 능동적으로 확충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활동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문화재단 자원의 능동적 활용: 성남문화통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델 구축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자면, 성남문화재단의 자원이 초기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및 문화도시 사업 등과의 연계지점을 확보하는 외에도 문화재단의 공간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이 능동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화통화제 활성화에 있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측의 능동적 의지를 바탕으로 재단 내부의 합의와 동의 과정을 조직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성남시 차원에서 목표를 공유하는 작업이 아울러 진행되어야만 한다. 재단 내부의 의지가 조건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문화통화 사업은 장기적인 과정을 설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재단의 신뢰 담보 역할: 문화통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담보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문화통화의 조직화에 있어 재단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자율적 주체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뢰 형성이 미진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재단이 사업의 주관자로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뢰의 구축이란 장기적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초기의 공적 신뢰를 재단이 담보하는 방안은 문화통화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 이념원칙과 현실원칙의 균형: 문화통화제도 시범 사업은 지역통화의 본래적 의미와 현실적 조건 내의 활용적 의미 사이에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기대 효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통화의 이념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적 원칙은 조건에 부응하면서도 조건을 새롭게 창출해가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면 문화통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는 문화통화 본래의 지향적 의미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정통화와 문화통화의 병행 사용 등의 방침 역시도 이에 따른 거래의 축소나 통화의 축적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때 운영사무국은 이념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 적절한 판단을 수행하고, 참여구성원들과 이러한 현실적 판단을 공유하는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3-3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 영역 분석

- 성남문화재단의 2007년 주요사업은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지역문화예술 기초DB 구축’,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통화기반시스템조성’, ‘시립박물관건립추진’, ‘책읽는 도시 만들기’, ‘책테마파크관련사업’이 있다. 이를 문예진흥 대상군별로 분리해보면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아마추어 동호인(단체) 지원’, ‘일반시민(청소년, 아동, 가족 등) 지원’으로 나뉘질 수 있다. 그리고 사업목표별로 정리해보면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문화공간운영 활성화’, ‘지역문화연구조사 활성화’로 나뉘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상의 대상군별과 목표군별 분류를 ‘문화창조도시 성남 만들기’ 정도의 시문화정책 차원의 큰 범주로 통합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이라는 하위 범주를 두어 재구성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성남문화재단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2007년 재단의 계획된 사업들을 대상군별과 목표군별, 그리고 확장 범주에서 대상군별, 목표군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영역들을 나열하고 각각이 성남문화통화제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도를 정리하는 정도에서 분석토록 한다.
 (* ‘+’는 통화 수입 발생, ‘-’는 지출 발생)

문예진흥 대상군/목표군별		활용 가능한 거점	거래 가능한 품목	재단 연계 가능 사업
대상군별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중심	· 성남시 문화예술인(단체)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수혜자(단체)	+ : 공연, 전시, 교육 통화 판매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관람 및 참가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 연습, 발표, 교육공간 대관사업 ·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아마추어/인터넷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	· 성남문화클럽 등	+ : 공연, 전시, 교육 통화 판매 + :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 : 발표회 준비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 :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 관람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 연습, 발표, 교육공간 대관사업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 마을축제 기획 운영
	성남시민(아동, 청소년, 가족 등)	· 성남시민 일반(상가번영회, 생협, 체육클럽, 대안학교 등)	+ :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통화 판매 - :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관람 및 참가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목표군별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 아파트주민예술제 등	+ : 축제 내 통화활용 프로그램 참가권 판매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 자원봉사자 활용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 마을축제 기획 운영
	문화공간 운영	· 성남아트센터 등 · 청소년 회관, 복지관, 문화의 집 등	+ : 공연, 전시, 교육 통화 판매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통화 판매 - : 전문강사 수당, 공연 개런티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 자원봉사자 활용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성	지역	· 공동육아, 대안교육단체,	+ : 자원봉사 제공, 강사파견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남 시 문 화 정 책	문화공동체 만들기	의료생협 등 · 성남의제21, 청년대학, 각 지역 생태교실 등	+ : 생필품과 단체 고유사업 통화 판매 - : 전문강사 수당, 공연 개런티 - :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 관람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 : 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 마을축제 기획 운영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	· 사회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놀이터, 책공원 등	+ : 각종 시설 관련 행사 참여 통화 판매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통화 판매 - : 전문강사 수당, 공연 개런티 - : 자원봉사자 활용 - : 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표 7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 분석표

- 위 표를 보면 ‘거래 가능한 품목’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통화’, ‘문화예술행사 홍보 통화’, ‘공연, 전시, 교육 등의 행사 통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통화’의 순이다. 이는 ‘모임 연습 발표 공간의 필요’와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문화관련 행사 제공’, ‘커뮤니티 홍보’, ‘자원봉사적극참여’로 나타났던 문화예술인과 문화클럽의 요구와 욕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단연계가능사업 중 빈도수가 많은 것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그리고 ‘마을축제기획운영’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재단이 초기에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문화통화제를 구상해볼 수 있는데, 즉 빈도수가 많은 사업들을 문화통화제와 연계 운영할 때 단기간 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4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은 그동안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등 광역 단위에서 검토되었던 문화정책적 실험으로서의 문화통화제를 현실화시켜낸 창조적 문화도시로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이러니와 한정된 문화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의 주요 대상군이 되는 문화예술인, 동호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기회를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돈이란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환수단 내지 유통수단이라고 할 때, 문화와 예술처럼 정신적 가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재화로 축적될 수 없는 서비스 영역의 교환과 유통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환 유통의 매개로서의 ‘통화제도’를 상정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은 예술인이나 동호회로 곧장 현금으로 지원되고, 이 현금은 인건비, 재료구입, 공간대여 정도에서 문화서비스 영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밖의 소비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면서 문화서비스 영역의 교환 유통을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에 비해 문화통화제를 도입 활용할 경우, 통화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용처를 일정정도 강제하는 문화통화제도의 성격상 성남 지역 문화예술 영역의 교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3-3에서 분석 정리했던 틀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에 따라 각각의 기대효과를 예상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문예진흥 대상군/목표군별		잠재회원	거래품목	기대효과
대상군별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중심	· 성남시 문화예술인(단체) · 문화예술 관련 산업체 (무대장비, 인쇄, 기획사 등) · 문화시설 (극장, 전시장 등) · 회원 등 관객 · 문화거점지역 주변 상가	· 공연/전시 준비 및 공연/전시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개런티 · 자원봉사 · 행사 홍보 서비스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창작지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성 형성
	아마추어/인터넷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	· 아마추어 동호회 · 전문 예술인, 소속 단체 · 연습실	· 공연/전시 준비 및 공연/전시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개런티 · 자원봉사 · 행사 홍보 서비스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성 형성
	성남시민 (아동, 청소년, 가족 등)	· 성남시민 일반(상가번영회, 생협, 체육클럽, 청소년단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등)	· 자원봉사 ·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관람 및 참가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산업활성화와 문화예술시장 형성 ·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성 형성
목표군별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 축제 주최자: 조직위, 지역 등 · 축제 참가 예술단체 · 축제 참가 아마추어 단체 · 축제 참가 시민	· 축제 프로그램 참여 · 자원봉사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아마추어 공연 개런티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행사 홍보 서비스	· 축제행사 참여도 제고 ·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 연례행사에 대한 고정관객 확보 · 문화통화 홍보 특별 행사로 활용
	문화공간 운영	· 문화시설 (극장, 전시장 등) · 일반 시민 · 예술가 · 문화시설 내 상업 시설	· 공연/전시 준비 및 공연/전시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개런티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 ·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 창작발표환경 개선
성남시민 문화정책	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 지역 주민 · 지역 기업이나 상가(회) · 관련 협동조합 · 시민사회단체	· 협동조합 거래 · 지역 문화행사 · 자원봉사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시민사회단체의 문화 행사 또는 연계 행사	· 문화활동을 통한 공동체 회복 · 문화예술인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 · 기존 유사통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문화통화 거래 활성화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	· 사회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놀이터, 책 공원 등 ·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지역 주민 · 전문 예술인, 소속 단체 · 아마추어 동호회	· 자원봉사 · 행사 홍보 서비스 · 문화예술교육 · 강사로, 관련 행사 개런티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 · 아마추어 활동 지원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지역 공동체 회복

표 8 문화예술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에 따른 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3-5 성남문화통화제의 개요(안)과 운영원리(안)

3-5-1 성남문화통화제 개요(안)

- 지역통화 일반에 대한 이해와 문화통화의 정립가능성, 그리고 지역통화 활용현황과 수요분석, 그리고 문화통화제를 도입했을 때의 기대치로부터 성남문화통화제를 정착·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성남문화통화제를 목적과 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정의해 보자면 ‘성남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이 거래등록센터, 중계센터로서 운영하는 문화통화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실행단계에서 문화통화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성남문화통화제 SeongNam Cultural Exchange Trading Systems’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애칭(또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애칭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성남19)’의 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라는 이미지를 이미지의 ‘새물’, ‘샘’, ‘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성남문화통화제 내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단위는 ‘물’과 대구가 될 수 있는 ‘구비’, ‘넘실’, ‘너울’, ‘섞’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문화통화제 내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자칫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통화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화폐인 ‘₩원’의 가치와 연동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품목으로는 예술인, 문화클럽,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및 교육활동(창작과 발표, 향수, 교육 전반)을 위한 공간과 시설장비 임대 임차, 인력 사용, 인쇄, 재료구입, 문화예술프로그램(공연, 전시, 교육 등) 참여 등을 기본으로는 하면서 활성화를 고려해서 생필품 구입이나 식사, 뒤풀이 회식비 정도를 확장 사용처로 등록하고 차츰 의료, 체육, 먹거리 등의 건강서비스와 교통서비스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서울문화재단의 지역통화 활용방안을 연구한 김해보씨의 논문의 틀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개 요
시스템 명칭	-정식명칭 : 성남문화통화제(SeongNam Cultural Exchange Trading Systems) -애칭 : ‘새물’, ‘샘’, ‘숨’
화폐 단위	-성남문화통화 ‘구비’, ‘넘실’, ‘너울’ 또는 ‘섞’
운영 목적	-문화창조도시 성남시 만들기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성 회복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세부 목적	-문화예술인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연습, 발표, 교육 공간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문화예술행사 정보 제공 체제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자원봉사 기회 확대와 증진

19) 성남시의 경우, 시정방침으로 ‘미래’, ‘첨단’, 그리고 ‘문화’라는 세 개의 핵심 아젠다를 이끌어 가는 도시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물이 없는 도시인만큼 오행의 조화를 상징하는 ‘물’의 이미지를 적극 차용하면서 필요가 있음.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물과 가까이할 수 있는,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친수권(親水權)은 오늘날 도시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p>화폐가치 및 가격결정 거래 방식</p>	<p>-법정통화인 '원W'과 연동 -가격은 초기 서비스 제공자 호가 등록과 향후 실거래시 사용자와의 조정으로 결정 -인터넷 거래 / ARS 전화 거래 병행 / 향후 카드 거래로 확대</p>
<p>조직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1차년 모델></p> <p style="text-align: center;"><2차년 이후 모델></p>
<p>거래 등록 소</p>	<p>- 중앙거래등록소는 성남문화재단 내 성남문화통화 사무국에서 운영 - 중앙거래등록소 주요 업무 · 전체 거래등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문화통화 홍보, 소식지 발간(웹진), 회원유치, 특별 행사 개최 · 성남문화통화 협의체 운영 · 문화통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 성남문화통화 사업 사례 연구 및 회원 교육</p> <p>- 단위거래등록소는 커뮤니티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운영 - 성남문화통화 범용시스템을 이용, 웹사이트 내 커뮤니티로 거래등록소 운영 - 주요 업무 · 거래 등록 및 관리 · 홍보, 소식지 발간 · 회원 유치 및 회원 대상 특별 행사 개최 - 적정 규모 : 200~300명 회원, 1~2명 운영 요원</p>
<p>계정 관리</p>	<p>- 회원 등록 시 id와 고유번호 발급(단체 고유 id와 개인 id 구분 발급) - 시범사업기간동안은 ARS와 인터넷 계정으로만 관리하고 향후 확산 정도에 따라 카드 연동제 고려.</p>
<p>주 거래 품목</p>	<p>- 아마추어,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 관련 품목 : 장소 및 장비 임대, 개런티, 인쇄비, 공연 기획비, 재료비, 식비, 뒤풀이비 등</p>

	-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 관련 품목 : 입장권, 문화예술교육, 마을축제 등 * 성남시 문화행정서비스 :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 * 향후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재화 및 서비스로 확대
통용 지역	- 성남 지역 내
현금 환전	- 현금 환전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되, 초기 사용진작을 위해서 한시적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9 성남문화통화제 개요

3-5-2 운영원리(안)

- 성남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남문화통화 사무국, 즉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거래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 사무국에는 팀장급 사무국장과 전산시스템을 개발 관리할 전문가 1인, 교육과 연구업무를 담당할 전문 연구자 1인, 그리고 각종 제휴 업무와 홍보업무를 지원하는 1명의 인력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국장이 간사 역할을 겸하는 문화통화운영위원회는 사무국, 전문문화예술인(단체), 동호회, 시민, 성남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성남문화통화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협의한다. 2차년부터 시행해볼 수 있는 커뮤니티 단위 통화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단위거래등록소에서는 커뮤니티 회원 200명을 기준으로 ‘거래 등록 및 관리’, ‘홍보, 소식지 발간’, ‘회원 유치 및 회원 대상 특별 행사 개최’ 업무를 담당할 1~2인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 성남문화통화의 기본적인 거래방식은 인터넷 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ARS전화 거래를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영역에서 의료와 체육, 먹거리 서비스 등 성남시 사회시장 전반으로 확장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카드 거래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회원의 계정관리는 처음 회원 등록 시에 고유id와 번호를 발급하되, 문화예술 단체의 고유id와 개인id 구분 발급하면서 재단과 단체 간 거래, 재단과 개인 간 거래를 구분하여 전체 통화량을 조정 운영토록 한다. 차후에는 개인 간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를 결성하면 단체 고유id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 1차년에는 문화통화제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문화클럽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통화를 운영토록 하고, 2차년부터는 재단이 주도하는 문화통화운영 사무국은 중앙거래등록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커뮤니티 단위의 단위거래등록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한다. 즉 200~300명 규모의 회원이 있는 커뮤니티들이 단위거래등록소를 스스로 운영토록 하고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이들 단위거래등록소 간의 거래를 매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초기에는 재단이 문화통화제 운영을 주도하면서 규모가 크고 통화 거래가 잦으며 상호 시너지가 있는 몇 개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면서 단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생활협동조합이나 공동육아 등 마을 단위의 공동체회복이나 생태환경 단체들을 발굴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통화거래 거점(Node)으로 단위거래등록소를 확보해 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커뮤니티나 공동체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거래품목으로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클럽의 요구와 욕구조사 결과와 거래 예측에 따라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문화예술행사 홍보’, ‘공연, 전시, 교육 등의 행사 준비 및 참여’,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로 통화 영역을 구분한다. 각각의 세부품목으로는 아마추어,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 관련 품목으로 장소 및 장비 임대, 개런티, 인쇄비, 공연 기획비, 재료비, 식비, 뒤편이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 관련 품목으로는 행사자원봉사, 입장권, 문화예술교육, 마을축제 참가 등이 있다. 그리고 향후 성남시 문화행정서비스 일반의 품목으로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와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재화 및 서비스 일반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3-6 국내외 관련 사례²⁰⁾

3-6-1 지역통화의 유형

- 지역통화는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첫째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레츠(LETS)가 대표적인데,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의 렛츠와 네덜란드의 노프스(Noppes)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인허가 시스템(fiat system)으로 뉴욕 이타카 지역의 아워즈 시스템(hours system)이 대표적이다.(아워즈 시스템에서는 1시간 10달러)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은행 형태의 지역통화체제로 대표적인 사례가 타임달러이다.

3-6-2 지역통화의 운영 현황

- 호주

· 1990년대 초 34개에서 현재 200여개로 확장되었으며, 전체 레츠(LETS)의 83%가 개인, 17%가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중 많은 숫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설립됨. 레츠 창시자 마이클 린튼은 “주의회는 구민회관(Community center)에 레츠 시스템을 세우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녹색 달러 개념의 통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콜린 윌리엄스는 “호주에 있어서 레츠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주정부였다”고 한다.

- 영국

· 1992년 5개의 시스템에서 1994년 말 약 275개, 96년 말 350개 이상, 현재는 약 6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 웨스트 요크셔의 ‘칼더데일 레츠’의 경우 회원들의 69%가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43%가 상품구매, 24%가 교육을 받았으며, 17%가 사업에 사용한다. 이 비율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 초기에 중산층의 녹색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저임금 계층을 끌

20) 미내사 홈페이지(<http://www.herenow.co.kr>)와 <공동선> 통권 제36호 1~2월호(윤홍순), 경기문화재단의 논문(10-18쪽) 그리고 박해보의 논문(20-25쪽)에 실린 지역통화 관련 글을 발췌 정리하였다.

어들이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레츠 이용자 1/3 이상이 실업자이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40%까지 이르고 있다.

- 미국

· 30개 주에 200여 개가 운영되는 에드가 칸(타임달러연구소 회장)의 ‘타임달러’, 뉴욕 이타카 지역에서 폴 그로버가 창안한 ‘아워즈’가 운영 중에 있다. 뉴욕의 이타카 머니는 1시간HOUR을 10달러의 가치로 환산하여 운영한다. 이타카 머니로 수도관 공사, 목수일 전기수리 등 수천가지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개의 대규모 식료품점에서, 40개의 농수산 시장에서도 사용된다. 상공회의소와 250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타카 머니가 사용되고 있다. 또 이타카 머니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수백 명이 HOUR를 벌고 소비한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자신이 즐기는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이타카 머니 동료로서 서로를 대한다. 이타카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상점은 다른 곳 보다 더 커다란 소비력과 판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5,500달러에 해당하는 이타카 머니를 25개 지역 단체들에게 기부했다. 이들은 서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이는 수입대체효과가 있었다.

- 한국

· 대표적으로 미내사의 ‘fm시스템’과 광명의 ‘그루’, 대전의 ‘두루’ 등이 있다. 1996년부터 환경관련 저널 “녹색평론” 등을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던 지역통화운동제는 1998년 3월 뉴에이지과학 민간단체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약칭 미내사)에서 단 10명의 가입자로 미래통화 “fm시스템”을 출범시킨 것이 시초이다. 이 때부터 국내 사회단체들의 관심을 얻게 된 지역통화운동은 빠르게 진행되어 1999년 초반기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불교환경교육원, 민들레 출판사, 녹색연합, 녹색교통, 유네스코, YMCA 녹색가게 활동가들의 참석 하에 지역통화운동실천모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대전에서는 1999년 10월에 박용남(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씨가 시스템을 기획하고 대전 지역통화시스템의 이름을 ‘한발레즈’로, 공동체 화폐명은 ‘두루’로 지은 후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 2000년 2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한발레즈는 2002년 8월 말 320여명의 회원과 월 150여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래로 거래자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1명의 시스템 관리자와 10명의 운영위원이 있다.

4.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분석

4-1 성남문화재단의 자원 분석

○ 성남시 문화환경 개요

- 성남시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주를 통해 형성된 도시이다. 1970년대 초반의 서울시 빈민층들의 이주를 시작으로, 분당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 현재 성남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87.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며, 전국적으로도 단연 수위권이다. 성남시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 관련 투자가 성남아트센터 개관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성남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공통의 지역적 특징을 결여하고 있으며,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생활 수준과 정서적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남시는 도시 내적인 갈등과 격차에 대한 문화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으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도시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 성남시의 문화예술 환경은 지역의 거점도시들에 비해 인프라의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활동 내용의 측면에서도 초기적인 문화정책의 수립 단계에 있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의 개관과 2006년 책 테마파크의 완공은 성남의 문화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경우 전국적 특성화 전략으로 단기간에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공연에 비해 타 활동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욕구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남문화재단의 구성과 지향

- 성남문화재단의 설립은 성남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기획 부서와 성남시의 문예진흥 및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사업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은 기초 실태조사 및 분야별 TF의 구성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데, 재단의 사업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²¹⁾.

-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마련
- 성남의 문화다양화를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
-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드높이는 문화복지공동체 구현
- 세계 속 문화도시로서의 성남시 위상 제고

- 문화공동체 구현과 문화도시화를 위한 실천 사업은 크게 5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되어 있다. 5대 정책과제는 ‘문화도시 성남 정체성 구현’, ‘시민창작활동 진흥’,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통화, 문화나눔’으로 설정된 바 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실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 네트워크인 정책실천 TF를 구성하여 지역과 전문성을 결합시키는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²²⁾.

21) <http://www.snart.or.kr> 에서 인용

22) <http://www.snart.or.kr> 에서 인용.

○ 성남 문화도시만들기 5대 사업의 연관관계

- 성남시의 문화정책 구상은 5대 사업의 연관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아래의 문화정책 개념도는 이러한 기본방향과 실천사업 사이의 연관성과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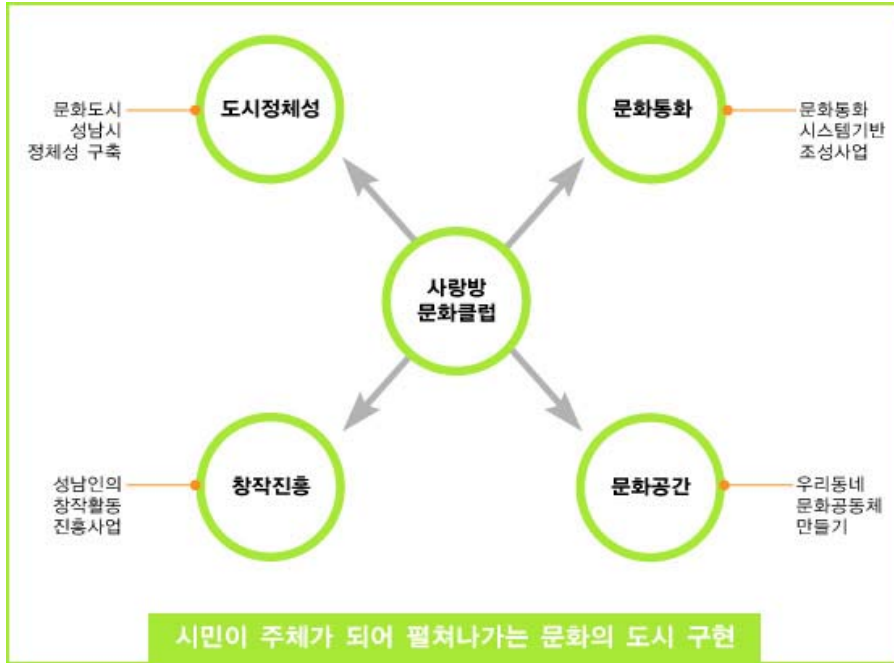


그림 3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 개념도

- 이 사업들은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각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²³⁾.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280,000천원)
 - <퍼포밍아트 공모, 창작, 공연 지원 사업>
 - 창작 희곡을 공모하여 1작품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사업
 - <성남시화 갤러리 창작, 전시 지원 사업>
 - 두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예술창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
 - <영화제 속의 영화제>
 - 영화제 화제작 감상 기회 마련, 청소년과 시민의 영화 창작 진흥

23) 이 내용은 2007년도 세출예산서와 성남문화재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300,000천원)
 - <웹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 체계적 구축 및 문화클럽 간 소통을 위한 웹기반 구축
 - <문화클럽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원 대상 선정, 워크숍 진행, 클럽 파티 등을 진행하여 사례화하는 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200,000천원)
 - <아파트 문화환경 개선 사업>
 - 아파트 문화 상징 개발 및 주민 전시회
 - <공단 문화환경 개선 사업>
 - 공단 지역의 문화 상징 개발 및 공단 내 전시회 개최
 -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및 실무자 워크숍>
 - 동네 축제 만들기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실무 지원 사업

○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자원 분석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개념적으로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창조적 활동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통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통화 사업은 5대 정책과제와의 연관 속에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다. 크게 보면 한 축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면서, 다른 한 축에서 보면 ‘창작활동 진흥사업’,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사업 영역과 결합하면서 문화도시의 실체를 구성해가는 위상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문화통화와 ‘창작활동 진흥사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통화와 창작활동진흥사업과의 연계는 재단의 입장에서 예산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거래내역을 통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일부를 문화통화로 지급한다.
- 초기에는 창작공간 및 연습공간에서 문화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있다.
-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사용처가 늘어나면 문화통화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실제로 다양한 공간의 확보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범적인 케이스 스터디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 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센터 오픈 시점에서 문화통화와의 연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07년도 사업에서는 <성남시화 갤러리 창작, 전시 지원사업>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정도가 고려될 수 있다.

- 올해 사업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사용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문화통화의 활용은 재단의 아마추어 지원 모델을 확립할 수 있고, 커뮤니티 내부와 커뮤니티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문화클럽의 자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전략적인 거래처를 확보한다.
- 문화클럽의 활동의 질을 높이고 발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술가 리스트, 문화활동 가능 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 문화클럽의 활동 여부와 거래 실적에 따라 문화클럽 지원금을 문화통화로 지급한다.
- 문화클럽 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의 축제 및 성남시 기관들의 활동들과 연계해나간다.
- 문화통화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할인 및 쿠폰제도와 병행)
- 클럽 파티 등을 통해 문화통화 거래를 시범적으로 연계하고 클럽 간 통화 거래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통화 모델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지역 단위의 환전소를 설치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문화통화로 지급한다.
- 지역 내의 호혜적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해 문화통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문화통화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를 발굴한다.
-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및 여타 활동과의 연계를 위해 거래품목을 다양화한다.
- 성남문화재단의 동네 축제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 2007년도의 경우 지역자치활동의 경험이 있는 동네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 사업 대상 선정 시 문화통화 사용 계획 등을 선정에서 고려한다.

- 성남문화재단의 준비 정도와 사업 성격에 대한 판단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문화통화 사용을 활성화하되, 1차년 도에서는 문화통화 운영을 조직화하기 위한 장애요인 도출과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다만 문화클럽 지원사업의 경우 전략적으로 문화통화와의 직접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 분석

- 성남시의 문화예술자원 현황

- 한 도시의 문화자원은 크게 문화시설 및 공간, 인력 등을 포함하는 문화자원,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지원체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시설과 공간은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 인력 및 프로그램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성남시의 문화예술 자원 현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²⁴⁾.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 내용	주요내용	갯수
문화시설 및 공간	문화예술 시설	공연시설	아트센터, 시민회관 등	5
		문화예술전수시설	성남문화원	1
		전시시설	전시관, 박물관 등	8
		정보제공시설	도서관, 문화정보센터	5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집, 복지관	9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2
	체육시설	체육시설	운동장, 경기장, 스포츠센터	11
	휴양여가 시설	휴양여가시설	공원, 유원지	17
문화교육 시설	문화교육시설	사설예체능학원, 사회/평생교육원	-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인력	전문예술인력, 문화활동지원인력, 문화교습인력, 문화예술단체/동호인회	-
	문화유산	문화재, 지역문화유산	기념물, 유·무형문화재, 보물, 향토유적	32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행사	문화예술제	예술제, 민속놀이, 축제, 문화재 등	14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유형	예술/건강/취미/학습/전통/기타	-
문화지원 체계	문화지원 제도와 문화재정	문화예술관련 지원	문화활동지원건수 및 지원액 규모	115개, 893백만원
		문화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 대비 문화예산	-

표 10 성남 문화예술 자원 현황

- * 문화교육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산규모는 제외.
- * 문화예술관련지원(2005년도 기준): 성남예총, 문화예술발전기금, 학교우수특기부 지원 포함.
-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시설은 30여 곳, 문화행사는 14 건, 문화예술지원 규모는 115개 사업에 893백만원(시 지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화통화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24)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16쪽에서 재인용.

있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토대로 기존 공간을 네트워크화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간 네트워크 구축은 기존의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인 공간을 네트워크하는 작업과 사적 공간을 공적으로 연계시키는 차원이 병행되면 공간의 활용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시의 공간 현황을 문화통화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파악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²⁵⁾.

◦ 성남문화재단 자체 공간

◦ 성남시 문화관련 공간

성남시민회관, 수정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분당문화정보센터,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등

◦ 공적 시설

시청 및 구청,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및 아동복지센터, 대학 및 학교 시설, 교회 및 종교시설 등

◦ 문화예술 사적 공간

사회단체 시설(YMCA 등), 문화예술단체 공간, 개인 스튜디오, 공동작업실, 각종 문화예술 관련 학원시설 등

◦ 기타 공간

마사회, 토지공사, 은행 등의 기간시설

○ 성남시의 문화예술인 현황

-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성남시의 문화예술인은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장르별로는 문학(4.5%), 미술(14.8%), 사진(9.2%), 국악(19.2%), 음악(30.9%), 연극(3.5%), 무용(14.2%), 영화(1%), 대중예술(2.7%)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 매개 활동 관련해서는 미진한 조사 결과이지만, 일단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의미하다.

- 문화통화 도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응답 결과는 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 의사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문화예술관련 사회봉사 활동에서 '현재 하고 있

25) 공간에 대한 범주화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조사 및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 가능 공간 분석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50-53쪽;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 방안 연구], 2006, 56쪽)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다'(49%)와 과거에 한 적 있다'(30.9%)로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하겠다'(86.7%), '반드시 하겠다'(9.2%)로 응답하여 전체 98.7%라는 절대 다수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문화예술공연 봉사'(36.7%), '문화예술교육'(25.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24.7%), '지역동호회 클럽 지원'(11%)로 제시되었다²⁶⁾. 또한 문화예술교환 시스템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96.5%가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강사 참여의사도 거의 비슷한 94.7%가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통화 도입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주민과의 거리 극복이나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환시스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문화통화의 도입 취지에 근접한 것으로 향후 시스템 설계에서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 문화예술단체

- 성남시의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문화종합 6곳을 포함하여 총 206개의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르별로는 문학(13), 국악(39), 음악(68), 사진(15), 연극(6), 미술(26), 영화(4), 대중예술(6), 무용(23)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 성남의 문화예술인들은 크게 예총에 약 2000여명, 민예총에 10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성남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²⁷⁾.

분야	갯수	분야	갯수
문화종합	6	연극	6
문학	13	미술	26
국악	39	영화	4
음악	69	대중예술	6
사진	15	무용	23
총계	206		

표 11 성남문화예술단체 현황

- 문화통화 관련해서 단체의 중요성은 문화통화에 소속 회원의 참여라는 차원 외에도 문화통화의 매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속 회원들에 대한 홍보 및 참여 권유 및 가능한 문화예술관련 서비스 파악 차원의 정보 매개 기능, 일부에 한정되지만 자체 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시민과 문화클럽과의 상호 문화통화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 매개 기능, 나아가 문화통화 운영에서 성남문화재단과의 협업과 네트워크 구성 등 운영 매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성남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문화도시 5대 사업의 성공 여부는 도시 내의 문화예술 순환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참여와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26)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XVI-XVII쪽 참조.

27)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17쪽에서 재인용.

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통화는 참여와 변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이때 단체들이 사업 취지에 동의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은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문화클럽

- 문화클럽은 커뮤니티 형태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동아리 모임으로 2006년 성남문화재단의 조사에서는 총 319개의 문화클럽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결과 문화클럽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²⁸⁾.

커뮤니티 성격	도수	비율	유효비율
전문가들의 모임	30	9.4	9.4
전문성을 갖추려고 배우는 모임	62	19.4	19.4
취미로 배우는 모임	98	30.6	30.7
취미를 공유하는 친목모임	107	33.4	33.5
기타	22	6.9	6.9
총	319	99.7	100

표 12 커뮤니티의 성격

- 이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 모임 및 전문가 지향 모임의 숫자는 9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취미와 친목 성격의 모임이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성격을 유형별 활동 특성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⁹⁾.

커뮤니티 성격	배움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친목클럽	총
전문가들의 모임	2(2.9)	20(19.2)	1(1.7)	5(6.8)	28(9.2)
전문성을 갖추려고 배우는 모임	13(18.8)	29(27.9)	6(10.3)	8(10.8)	56(18.4)
취미로 배우는 모임	35(50.7)	18(17.3)	34(58.6)	7(9.5)	94(30.8)
취미를 공유하는 친목모임	13(18.8)	36(34.6)	16(27.6)	45(56.8)	107(35.1)
기타	6(8.7)	1(1.0)	1(1.7)	12(16.2)	20(6.6)
총	69(100)	104(100)	58(100)	74(100)	305(100)

표 13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 이 조사결과에서 보면 문화통화 도입 관련하여 유의미한 지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과의 연관을 찾으면 문화통화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의 성격과 클럽의 유형별 특성에서 공헌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취

28)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67쪽에서 재인용.

29) 성남문화재단, 위의 자료집, 119쪽에서 재인용.

미 모임들을 전문가나 예술가들과 연결시켜 클럽의 활동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클럽들의 진화 모델을 문화통화를 이용한 교습 활동과 연결시키면 클럽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공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문화클럽 조사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22.6%), 모임공간 지원(18.2%),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13.5%), 발표장소 지원(12%)로 나타났다. 다음은 문화클럽별 지원 요구 현황이다³⁰⁾.

지원항목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12.0	22.0	10.0	10.1
모임 공간	19.0	17.0	19.0	17.8
발표 장소	10.0	8.0	13.0	16.8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	4.0	6.0	6.0	4.4
전문 지도자 연결	10.0	11.0	7.0	7.4
예산 일부 지원	23.0	17.0	26.0	24.2
커뮤니티 홍보공간	3.0	3.0	2.0	2.7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3.0	2.0	3.0	1.7
문화관련 행사	10.0	6.0	12.0	12.8
커뮤니티 관심 정보 제공	5.0	7.0	2.0	2.0
총	100.0	100.0	100.0	100

표 14 문화클럽의 요구사항

- 이 결과에서 추정하면, 문화클럽의 요구는 예산 지원과 공간 지원(모임 공간과 발표 장소)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기타 친목클럽과 배움클럽에서는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지도자 연결 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숙련클럽과 공헌클럽은 발표 장소와 문화관련 행사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클럽의 유형에 따라 문화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 성남 문화재단의 포지션에서 보자면, 이러한 결과는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전략 원칙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성남 문화재단은 공간과 예산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고, 문화클럽 지원 사업을 문화통화 사업과 연계하여 한편으로는 클럽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관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마추어 및 클럽 지원의 경우 목적별 지원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취하면서 일상 창작과 생활예술의 근거로 육성해나가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면, 문화통화는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는 엔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 분석 결과의 전략적 도출

■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30)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6, 143쪽에서 재인용.

- 공간의 부족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현안 문제일뿐더러 아마추어 문화클럽에서도 가장 큰 활동 제약요소로 파악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창작공간은 개인 혹은 공동작업실의 형태로 75% 정도가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³¹⁾. 하지만 이 공간의 권리관계는 임대료가 77.3%에 이르러 예술인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 특히 예술인들의 활동 발표 및 전시 공간은 비용 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제도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며, 문화클럽의 경우에는 모임과 활동, 발표 공간 모두에서 큰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클럽 조사대상 303개 중에서 활용가능한 개인스튜디오 및 작업실을 가진 경우는 4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³³⁾.

-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문화클럽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간의 제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요소를 고려하면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공간의 제공이 핵심적인 지점일 수 있으며, 문화통화와 공간 네트워크를 결합시키면 초기적인 문화통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재단이 제공하고, 이 공간을 교류와 활동의 장소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관 시설들 사이에 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시설들의 경우 행정적 협력 조치를 통해 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적 공간에서 문화통화를 사용하게 한 뒤 문화재단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간 사용 비용을 환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 문화예술인 및 문화클럽들의 사회공헌 의지와 연계 방안

-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 클럽의 유형을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으로 구분하였다. 문화통화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통화와의 연결가능성은 친목클럽 < 배움클럽 < 숙련클럽 < 공헌클럽 이라는 스펙트럼 상에서 배치될 수 있다.

- 물론 문화클럽의 유형에 따라 문화통화에 참여할 객관적 가능성이 다르다. 친목클럽은 내부 결속이 목적이어서 통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움클럽의 경우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낮지만, 학습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 전문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숙련클럽은 배우는 과정 및 발표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 전문가와 공간 제공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공헌클럽은 대외 활동 정도가 높아 문화통화 전반의 피드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공헌 활동은 문화통화 활성화의 전략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들과 문화클럽은 사회공헌의 의지는 있지만, 정보를 충분히 구할 수

31)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48쪽.

32) 성남문화재단, 54쪽.

33)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2006, 56-57쪽.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사회 공헌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사회공헌에 문화활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발휘하면 문화통화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재단의 정보 및 활동 연계 기능은 문화예술 활동이 장기적으로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통화제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만들기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 문화클럽의 핵심 전략 거점화

- 문화클럽의 중요성은 관계 형성을 통해 문화를 학습하고 교환하는 문화통화의 개념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들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비자(prosumer)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 그룹으로 발전 가능하다.

- 사랑방 문화클럽은 단계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클럽의 발전이 문화도시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단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이 전략의 구축 과정에서 문화통화제도가 활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호혜적인 '지식의 순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이러한 상호협력을 문화통화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 문화클럽들의 활동에 문화통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이후 예술인들의 지원 사업 중 일부를 문화통화를 활용한 공간 사용 및 활동 연계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특히 성남 문화재단에서 문화클럽에 대한 명확한 정책 의지와 지원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어 문화통화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전략적으로 적합하다.

-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면 초기에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사업과 문화통화 사무국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합 사무국의 운영은 정보의 순환 및 양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3 성남시 지역통화 사례 분석

4-3-1 사례

○ 성남참여자치연대

- 2003년 회원간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는데, 당시 교환품목으로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소위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단체 회원들이 생활기반으로 갖고 있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세차장, 카센터, 비디오가게, 세탁소, 분식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초기 회원의 규모는 약 200여명 정도였는데, 이후 저변 확대를 모색했으나,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제대로 집행을 해보지 못한 채 사

업이 폐기되었다.

○ 성남청년대학의 사례

- 2000~2002년까지 '두레마을' 이라는 이름으로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시행하였다. 상근자 2인을 중심으로 단체를 거쳐 간 2500여 동문들과 회원 주변을 1차 대상으로 하여 회원 확보해 갔으며, 거래품목으로는 회원들의 생업과 단체의 문화교육적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같은 회원업체에는 10%의 할인혜택을 주고 회원들은 청년대학의 정기 강좌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을 하는 회원의 경우 정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었으며, 청년대학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자동가입 형태로 회원을 확대해갔다. 가맹점회원의 경우, 대부분 주위 관계에 기초하여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청년대학이라는 단체에 후원하는 의미와 작은 규모이기는 했지만 회원들이 직접 찾아와 거래를 확대하는 이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권고해갔다. 하지만 CMS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회비를 매월 수납하는 방법이 없어 매번 사람이 찾아가서 회비를 걷는 소모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상근인력 2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비디오 하나를 빌리기 위해 다른 동네에 있는 회원가맹점을 찾기에는 비용적 측면과 수고로움 등 문제점 발생하면서 회원들의 이용률이 적었고,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4-3-2 합의와 고려사항

- 1995년 영국의 지역통화운영단체(레츠, LETS)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조사결과에서 90개 단체들이 토로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³⁴⁾

- 레츠의 이념에 대한 불신
- 부채에 대한 두려움
- 거래의 여건 조성
- 신규회원확보
- 교역지역이 너무 넓지 않을까하는 불안
- 이용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성남참여자치연대와 성남청년대학이 겪은 어려움 역시 영국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지역통화 운영 초기 핵심회원들은 지역통화의 이념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들이 단기간 내 통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규회원을 늘림으로써 통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발생한 여타 지역통화 또는 대체통화와 상호교역체제를 구축해내지 못 할 경우, 초기 부채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고 핵심회원들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통화운영체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성남지역통화 초기 시도와 외국의 사례는 성남문화통화제의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주요한 고려점이 된다.

5. 성남문화통화제 모델 제안

34) 조너선 크롤 저, 박용남 역, 『레츠』, 도서출판 이후, 2003, 83쪽

5-1 재단주도모델 : 사랑방문화클럽 활성화를 중심으로

5-1-1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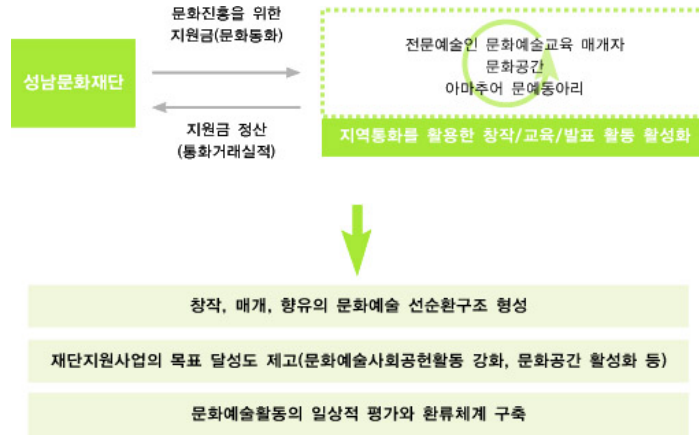


그림 4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개념도

5-1-2 기본흐름도(안)

* 사업흐름은 번호 순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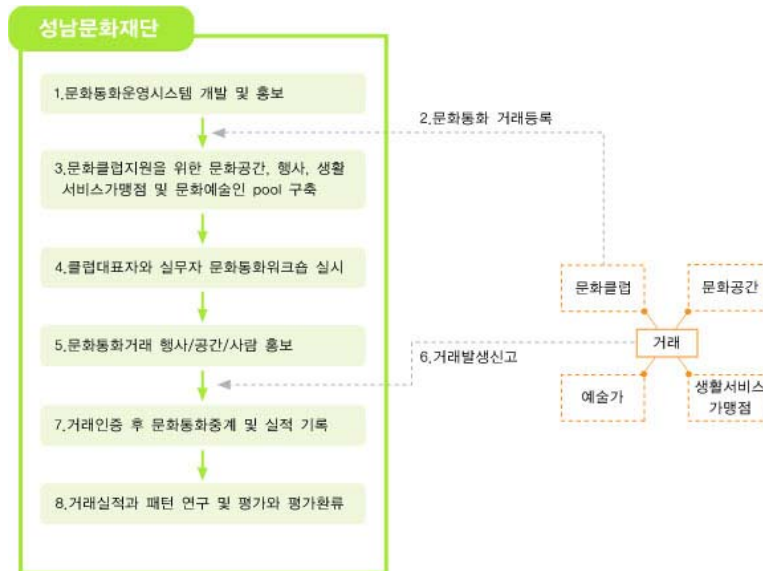


그림 5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흐름도

5-1-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주체적 문화생비자로서의 문화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 연계자원 네트워크
-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제 구축
- 지역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5-1-4 사업의 내용

5-1-4-1 사업범위 및 대상

-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시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동일

5-1-4-2 사업내용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홍보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지역통화 관련 시스템 중 미내사클럽의 온라인 통화거래 시스템(<http://www.fmkorea.or.kr/main/main.php>)이 본 연구에서 대상영역으로 삼고 있는 성남문화통화 운영시스템 구축과 가장 유사함. 시스템 개발 구축에 있어 이를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문화통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홍보는 조사된 전체 클럽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통화거래등록을 유도함. 거래등록 시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통화거래품목의 범주로서의 ‘공간’,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나누고 각 클럽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유도할 것.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문화클럽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에 활용함.

클럽명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실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활동지역			
제공 서비스	공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교육		
	문화예술행사		
요청 서비스	공간		받고 싶은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교육		
	문화예술행사		
단체소개			

표 15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 홍보를 할 때는 향후 문화통화활용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통화의 등록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
- 문화클럽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
 - 문화클럽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통화 거래등록 시에 요청서비스로 등록한 ‘공간’(모임, 연습, 발표, 뒤풀이)와 전문예술인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 그리고 클럽활동 관련 문화예술행사 ‘향유’ 기회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점이나 주체와 예술행사를 확보하고 문화통화거래등록을 하도록 유도함.
 - 통화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단 차원에서 통화 거래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를 활용하여 통화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뒤풀이 장소를 적극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등을 통해 축적된 문화통화를 소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

시에 향후 문화통화가 생활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클럽회원 간 잦은 회합의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클럽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려니와 신뢰에 기반하는 소통의 관계를 지원하는 통화제도의 성격에도 부합함.

<예시>

- 공간(모임, 연습, 발표, 뒤풀이 공간) 확보
 - > 아트센터의 기존 대관시설 전체
 - > 아트센터 유휴공간을 모임공간이나 연습공간으로 개조한 후 대관
 - 예1. 오페라하우스 1~2층 개방형 모임공간으로 활용(5,000굽이/시간)
 - 예2. 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 홀 대관(10,000굽이/시간)
 - 예3. 뮤즈홀(5,000굽이/시간)
 - 예4. 아트센터 지하의 개인음악연습실(6평 규모)을 소규모클럽연습실로 활용가능토록 협의 후 대관(5,000굽이/시간)
 - > 성남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 공간을 문화통화로 대관할 수 있도록 섭외
 - > 아트센터에서 근거리에 있는 호프집이나 커피숍, 또는 식당을 뒤풀이 또는 모임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섭외
- 전문예술인(단체) 풀 구축
 - > 문화통화거래 가능한 각 장르별 다양한 역할의 전문 예술인(단체) 모집
 - > 강의나 지도, 작품 스텝 참여는 타임머니방식으로 통화 지급. 예를 들어 1시간 강의는 30,000굽이.
 - > 공연이나 전시 등의 경우, 문화통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 현금 환전 가능 시기는 12월10일~20일로 제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문화통화온라인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환전 가능 시기 1개월 전부터 홍보. 환전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문화통화는 12월21일자로 자동 소멸. 단, 실적으로는 남음>(*현금환전은 초기 통화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센티브를 현금환전 대신 다른 예술인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문화예술행사 풀 구축
 - > 문화클럽이 문화예술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을 축제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풀 구축.
 - > 아트센터의 문화예술행사 초대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클럽이 클럽활동과 연관된 전문적인 문화예술행사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통화 활용 문화클럽 대표자와 실무자 워크숍
 - 문화통화제 도입 취지와 활용방법, 그리고 클럽 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클럽 대표자와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함.
 - 워크숍은 문화통화를 직접 활용하면서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함으로써 통화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1박2일 정도

로 숙박을 함께 해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임.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

- 문화통화를 활용 주체들은 자신들을 알리거나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행사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음. 문화재단측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화통화를 활용하는 행사나 공간 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마을 단위 축제에 성남문화클럽들이 초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성남문화통화 관련 소식을 직접 발행하고 문화통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 외에도 지역 언론이나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 행사나 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벽찰 수밖에 없는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통화활용의 기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문화통화 거래인증 및 중계와 기록(미내사클럽 홈페이지 참조 <http://www.fmkorea.or.kr>)

- 문화통화의 거래는 당사자간 호가를 통해 조정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는 온라인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토록 함. 이러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거래 상태	거래등록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서비스를 거래소에 등록함
	거래대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거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림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음
	통화지급	통화를 지급하거나 받음
	지급완료	통화지급이 완료됨
	거래완료	거래가 종료되거나 보류됨

표 16 문화통화 거래절차

-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거래한 후 이를 온라인에 등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간소화된 거래절차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도 있음.
- 거래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록토록 함.

거래명	
거래종류	(+) 제공거래 / (-) 요청거래 * 제공거래나 요청거래 중 선택토록 함
분류	행사, 공간, 교육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선택토록 함
통화액	() 문화통화 + () 현금 * 괄호 안에 기대하는 거래금액을 적도록 함
거래내용	*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함
이미지	* 파일로 첨부
파일	* 파일로 첨부

표 17 문화통화 거래등록양식 예시

- 문화통화 거래 패턴 연구와 실적 평가 및 환류

- 문화통화 거래실적은 통화운영사무국과 통화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클럽별로 소위 'My Page' 정도를 둬.

* 거래명을 누르면 거래기록을 볼 수 있음

()님의 문화통화 거래 내역						
()년 ()월						
거래일자	거래회원(ID)	거래명	수입		지급	
			통화	현금	통화	현금
합 계 (총거래 : 00 건)			0000	0000	0000	0000
· 받은거래 : 00건		· 통화 총 거래량 : 0000		· 현재 통화 보유액 : 000000		
· 제공거래 : 00건		· 현금 총 거래량 : 0000		· 마이너스 통화 한도액 : 000000		
· 총 거래 : 000건						

표 18 문화통화 거래내역 조회 예시

- 이러한 개별 클럽들의 통화 거래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통계화 할 수 있도록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둬으로써 평가환류가 일상적으로 가능토록 함.

5-1-5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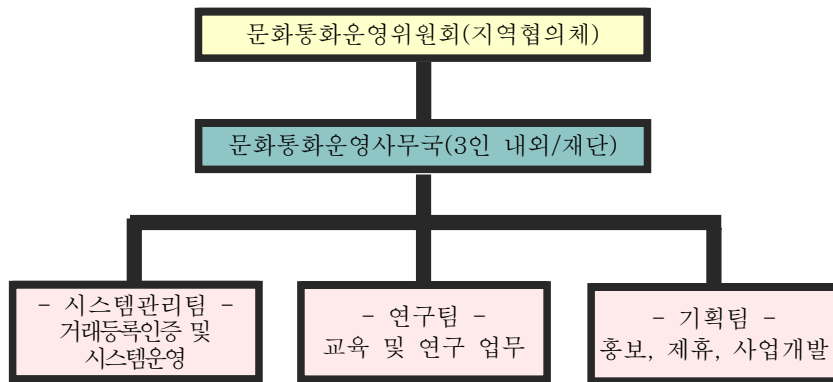


그림 6 문화통화제 운영 추진 체계

5-1-6 추진전략

- 문화클럽 동호인들의 상황과 요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주체적 참여 유도
- 성남문화재단의 기 사업 연계방안 적극 강구 :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등
- 성남시의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주체의 준비 정도에 기초한 사업 추진
- 문화클럽 동호인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공간, 인력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 마을축제-예술인-동호인-문화공간-시민 등의 각 문화주체들이 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사례 구축을 일차적 목표로 진행하고, 향후 성남시 문화클럽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성남시 문화복지와 성남시민들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지원제로 확대 운영
-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 마련

5-1-7 2007시범사업 추진일정

- 재단에서 문화클럽활성화를 위한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홍보(3~4월)
- 문화클럽에서는 문화통화거래 신청(4~5월)
- 재단에서 문화통화거래가 가능한 공간, 행사, 전문예술인(단체) 풀 구축(5~6월)
- 아이디어를 발급받은 문화클럽 실무책임자 대상 문화통화 활용 워크숍 실시(6월)
- 시범사업실시(7월~11월)
- 사업실적 정리 및 평가 후 시스템 보완(12월)

5-1-8 고려사항

- 통화의 순환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 고려
 - ‘지역사회문화봉사활동 확대 유도’, ‘지역의 사랑방 문화클럽활성화’, ‘지역문화공간운영 활성화’라는 재단의 사업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화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통화의 순환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환금 여부에 따른 고려사항과 재단의 대처
 - 초기 정착과 전문적인 문화예술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인센티브제로 법 정통화(W원)로 환금할 경우, 재화의 축적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특정 관계집단을 통해 문화통화제가 악용될 여지도 있음. 건전한 통화제 운영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재단의 노력이 필요함.
 - 환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금에 상응하는 ‘아트센터무료사용’, ‘성남문화재단 문화 예술행사초대’, ‘문화통화를 통한 문화자원봉사상’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화사용을 유도해야함.(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성남시 차원에서 문화통화운영 조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5-1-9 예산(단위 : 천원)

항목	내역	금액	
인건비	팀 장 : 1인*1,500*10개월 연구원 : 2인*1,000*10개월	35,000	
사업비	용역발주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용역	10,000
	워크숍(1박2일)	100명*40	4,000
	인센티브제공	클럽 : 30클럽*1,000 공간 : 15공간*2,000 * 예술인은 지원사업의 가산점 제공	60,000
운영비	서버임대관리비	1,000*8월	8,000
	홍보	소식지발간 및 배포 2,000부*8월*1	16,000
합계		133,000	

표 19 재단주도형 문화통화제 1차년 운영예산

5-2 재단지원모델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5-2-1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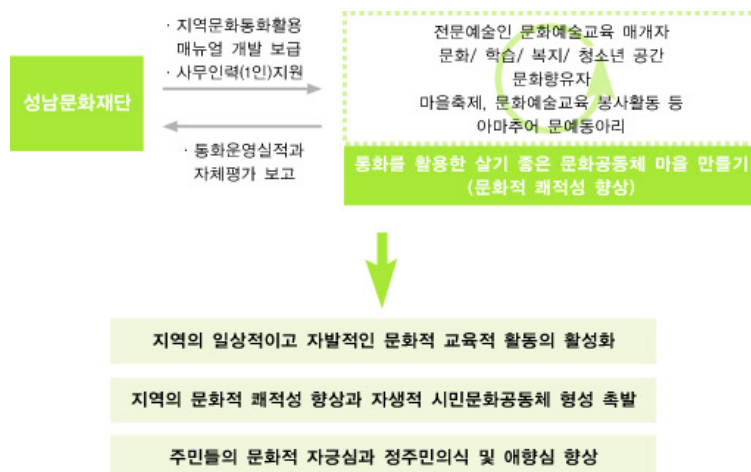


그림 7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개념도

5-2-2 기본흐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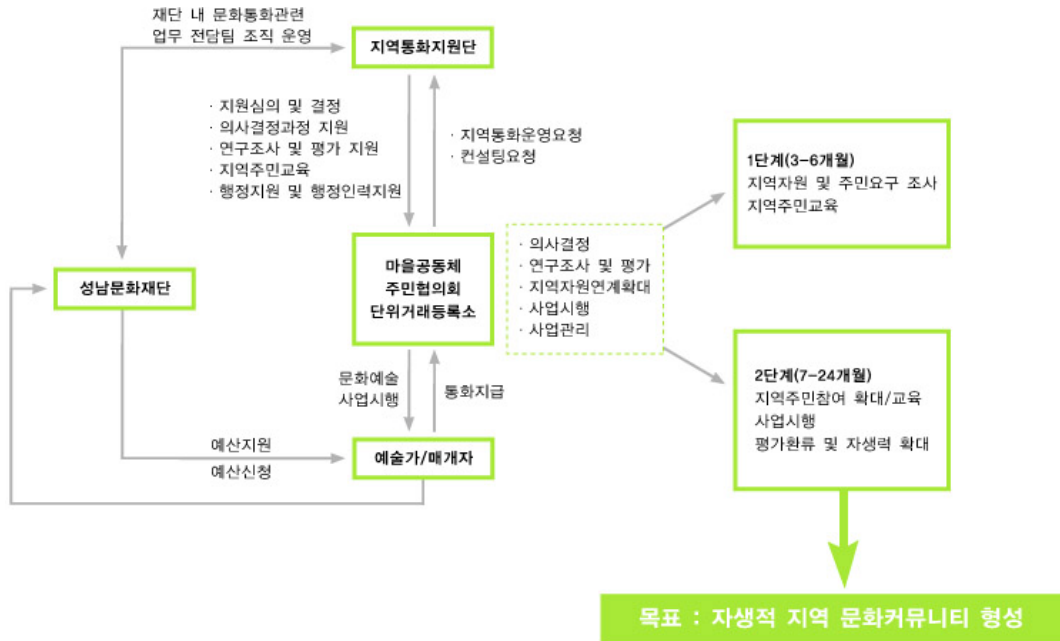


그림 8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기본 흐름도

* 사업 흐름은 번호순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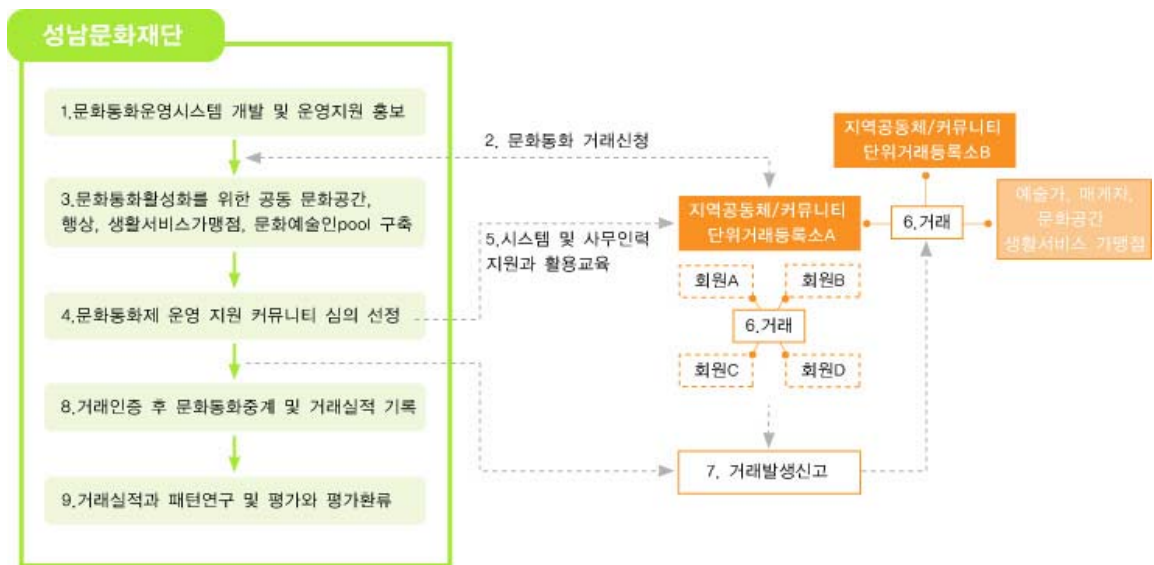


그림 9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세부 흐름도

5-2-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마을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 마을의 문화적 쾌적성(amenity) 향상
-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 네트워킹
-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유의 선순환 체제 구축

5-2-4 사업의 내용

5-2-4-1 사업범위 및 대상

-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시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대상 범위와 동일

5-2-4-2 사업내용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온라인 운영시스템과 오프라인 운영시스템을 병행 운영함. 오프라인 통장기장방식의 운영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을 같이 사용함에 있어, (가)통화장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당사자 간 면대면 거래는 직접 통장을 이용하고, 이를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온라인시스템에 기록해서 실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함.
 - 그리고 단위 거래등록소를 벗어난 이웃 거래등록소와의 거래나 예술가, 매개자, 문화공간, 그리고 생활서비스공간과의 거래는 온라인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함. 온라인 운영시스템은 본 연구 5-1-4-2의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고, 오프라인 운영시스템은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통화 ‘그루’나 성남시의 모람아지트에서 2006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통장기장 방식을 참고하여 개발 운영함.
 - 단위 거래등록소의 통화단위는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앙 거래등록소는 각 단위 거래등록소의 통화가치를 ‘(가)성남문화통화 굵이’와의 환가치를 월 단위로 평가함.
 - 단위 거래등록소 간의 거래에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며, 단위 거래등록소를 통해 공용 통화인 ‘굵이’와 환통화하여 거래토록 함.
 - 단위 거래등록소에서 운영하는 통화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에 들어갈 약 할 내용 예시

거래 일자	거래 자	거래내역	거래		잔액	거래자서명
			⊕거래	⊖거래		
			⊕	⊖		
			⊕	⊖		
			⊕	⊖		
			⊕	⊖		
			⊕	⊖		
			⊕	⊖		
			⊕	⊖		
			⊕	⊖		
			⊕	⊖		

표 20 광명시 문화통화 ‘그루’ 통장 양식 예시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통화의 경우 단위 거래등록소의 회원들

간의 거래가 기반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용 등록시스템에서 문화통화 운영 지원 선정 단체에 한해 단체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고, 이후 단위 거래등록소별로 개인등록을 하도록 유도한다. 단체등록양식은 5-1-4-2를 참조하고 개인등록 양식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활동지역		
주요 제공 서비스	공간 교육 문화예술행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주요 요청 서비스	공간 교육 문화예술행사	받고 싶은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자기소개		
가입동기		

표 21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 홍보는 이미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나 대안학교, 문화클럽, 상가연합회, 아파트주민회 등을 중심으로 하고, 통화운영을 위한 인력과 교육, 그리고 시스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문화통화활용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통화제 운영신청과 등록 및 거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 문화통화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용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
 - 문화통화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품목이 다양해야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서 구매거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함.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커뮤니티 내부 거래로만 한정되면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단위 거래등록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생활서비스

가맹점을 확보해두고 단위 거래등록소의 거래가 확장 거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앞 장 5-1-4-2 참조.

- 문화통화제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심의 선정

- 문화통화제 단위 거래등록소 선정은 이미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정례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
- 지원은 회원수 200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며, 2-3개 이상의 동 단위를 연계하면서 활동하는 마을 커뮤니티,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2-3개 단지 연계 가능), 3개 이상이 연계된 문화클럽, 상품의 직접적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번영회(최소 30가게 이상), 법인격 문화예술단체, 2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원회, 조합원 200명 이상의 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형태 등이 있고, 이를 대상군 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대상군	지원가능 커뮤니티
지역기반 커뮤니티	아파트주민회, 마을번영회, 부녀회 등
조합형태 커뮤니티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학습조직	공교육학교와 학생 수 100인 이상의 대안학교
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등록 문화클럽
직종기반 커뮤니티	상가번영회, 지원상조회, 각종 협회 등
법인격 문화예술단체	예총, 민예총, 문화원, 문화연대, 성남문화재단 등

표 22 문화통화제 운영 대상군별 지원가능 커뮤니티

- 지원내용은 반 상근 사무인력 인건비 1인 100만원/월 지원, 온라인 시스템 지원, 공용 가맹점 POOL 제공, 광역단위 거래 지원, 회원 교육지원, 기타 소식지 발간과 홍보 사업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접수방법은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로는 지원서 외 단체소개서와 사용 인감, 더불어 회원 30% 이상의 동의날인을 포함하도록 함.
- 선발 커뮤니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가급적 1차년에는 대상군별로 1그룹씩을 선발토록 하고, 유형별 사례를 평가 축적해둘 필요가 있음.
- 심의는 지역인사, 문화예술계인사, 전문연구자, 성남문화재단 통화사업 담당 부서장, 성남시청 담당 부서장, 시의원이 골고루 심의위원으로 참가하여 사업의 중단 기적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그룹을 선정토록 함.

- 사무인력 및 시스템 지원 및 활용 교육 실시


- 문화통화제 도입 취지와 활용방법에 관한 회원 워크숍을 실시함.
- 워크숍은 단위 거래등록소별로 실시하며, 단체의 성격에 맞는 통화명 정하기에서부터 거래방식과 거래품목 등 통화운영에 필요한 세세한 항목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체크리스트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함. 이는 통화운영기관으로 지원하기 전에 회원들 간 미리 합의한 후 지원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통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심의 선정 후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재차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항 목	개 요
시스템 명칭	
화폐 단위	
운영 목적	
세부 목적	
화폐가치 및 가격결정	
거래 방식	
조직 구성	
거래등록소 주요업무	
계정 관리	
주 거래 품목	
통용 지역	
현금 환전	

표 23 단위거래등록소 회원교육 의결사항 체크리스트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의 기본 방침은 5-1-4-2 참조.
 - 단위 거래등록소별로 소식지 발간은 가급적 단체의 고유한 회원 소식지(온라인 포함)를 활용토록 하고, 소식지에 들어갈 내용은 거래품목장터, 신입회원소개, 이달의 우수통화거래자 인터뷰, 신규회원모집광고, 이웃 단위 거래등록소 소식을 기본으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 이웃 단위 거래등록소의 소식과 문화통화 관련 전체 소식은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일괄 취합 편집 제공함.

- 문화통화 거래인증 및 증계와 기록
 - 단위거래등록소와 중앙거래등록소 거래의 차이는 온라인 거래와 통장거래 병행이라는 차이가 있다. 온라인 거래는 모든 거래의 기록이 중앙 거래시스템을 통해 증계되는 반면, 통장거래 병행방식은 거래당사자간 면대 면으로 신용에 기반하여 통장에 직접 기장하는 방식과 온라인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 기장된 내용은 주기적으로 온라인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로드 주기는 최대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중앙거래등록소는 11월말까지의 기록과 실적만을 평가와 평가환류 자료로 사용토록 함.
 - 거래절차는 기본적으로 5-1-4-2와 같으며, (가)문화통화 알뜰장터나 생활서비스가맹점 등을 통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온라인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운영함.
 - 통장기장방식의 직거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지역통화 그루로 만드는 유쾌한 세상 

거래일자	거래자	거래내역	그루(GURU)거래		그루잔액	상대방 서명
			받음	지불		
2004.4.8	임정아	타카 샵포인트	⊕	⊖ 2,000	-2,000	임정아
4.21	장동만	만년필 리필카드내	⊕	⊖ 1,000	-3,000	장동만
4.28	고영준	드림라이트	⊕	⊖ 1,000	-4,000	SVT
4.28	고영준	메오패드	⊕ 1,000	⊖	-3,000	SVT
5.16	남경화	백일머구기	⊕	⊖ 1,000	-4,000	남경화
5.18	김영근	그루학교 강의	⊕ 50,000	⊖	+46,000	김영근
5.18	김영근	사무국에 기부	⊕	⊖ 40,000	+6,000	김영근
6.10	임정아	환도	⊕ 10,000	⊖	+16,000	임정아
6.10	임정아	그루통 상환	⊕	⊖ 20,000	-4,000	임정아

그림 10 통장기장방식 예시 : 광명지역통화 그루

- 문화통화 거래 패턴 연구와 실적 평가 및 환류
 - 문화통화 거래실적은 평가와 환류는 5-1-4-2 참조.

5-2-5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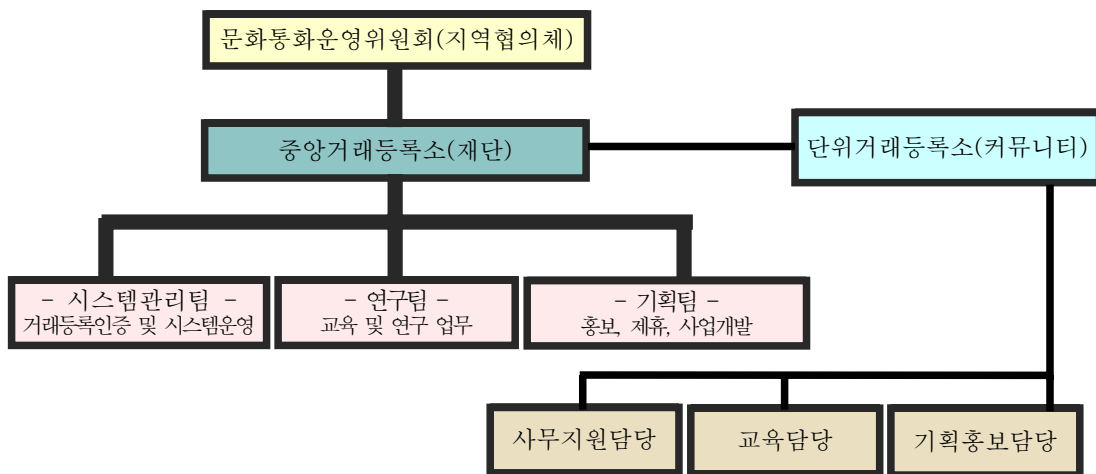


그림 11 재단지원문화통화제 추진체계도

* 단위거래등록소의 통화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지원담당, 회원들의 교육 담당,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고 가맹점을 개설하는 기획홍보담당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필요하다. 상근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각 담당이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갖춰야함.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기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를 단위거래등록소로 지정하고 운영토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지역의 3~5명 정도의 사무공간을 적절히 연결해주거나 중앙거래등록소의 공간 한 칸을 이용토록 제공해 줄 필요도 있음.

5-2-6 추진전략

- 초기단계에서 문화통화 이용 주체 형성에 주력
- 성남문화재단의 기 사업 적극 활용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과 요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공간, 인력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 주체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마을축제-예술인-동호인-문화공간-마을주민 등의 각 문화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미리 섭외된 매개자 그룹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문화환경개선과 마을축제 등의 공동체 행사 만들기
- 문화통화를 활용하는 각 공동체 간 연동체계 구축하고 통화거래를 통한 커뮤니티 간 교류사업 확대
- 향후 성남시 문화복지와 성남시민들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지원제로 확대 운영

5-2-7 1차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구축 및 홍보(3~4월)
- 문화통화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용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4~5월)
- 문화통화제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심의 선정(5월)
- 사무인력 및 시스템 지원 및 활용 교육 실시(6월)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6월)
- 시범사업실시(7월~11월)
- 사업실적 정리 및 평가 후 시스템 보완(12월)

5-2-8 고려사항

- 초기 시스템 설계의 어려움
 - 단위거래등록소와 중앙거래등록소 시스템 간의 연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초기 단위거래소 사무국 운영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간, 기자재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 정도
 -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통화운영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화활용 주체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체를 발굴 육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문화통화운영조례의 필요성
 - 문화통화제의 정착단계까지는 예술인, 매개자, 문화공간의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재단 기금의 문화통화 전환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 모델과 마찬가지로 문화통화활용 촉진과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성남시 차원에서 문화통화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5-2-9 예산(단위 : 천원) - 5단위거래등록소 지원 기준(1차년도)

항목		내역	금액
인건비	중앙거래등록소	팀 장 : 1인*1,500*10개월 연구원 : 2인*1,000*10개월	35,000
	단위거래등록소	5단위*1인*1,000*10개월	50,000
사업비	용역발주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용역	10,000
	워크숍(1박2일)	20명*5단위*40	4,000
	인센티브제공	단 위 : 2단위*5,000 공 간 : 15공간*2,000 * 예술인은 지원사업의 가산점 제공	40,000
운영비	서버임대관리비	1,000*8월	8,000
	홍보	소식지발간 및 배포 5단위*1,000부*8월*1	32,000
합계			179,000

표 24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사업시행 1차년 예산

* 5-1 모델이 1차년도에 추진된다고 고려했을 때 사업비 중 시스템 개발비용은 줄일 수 있음.

5-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 응용형 모델

5-3-1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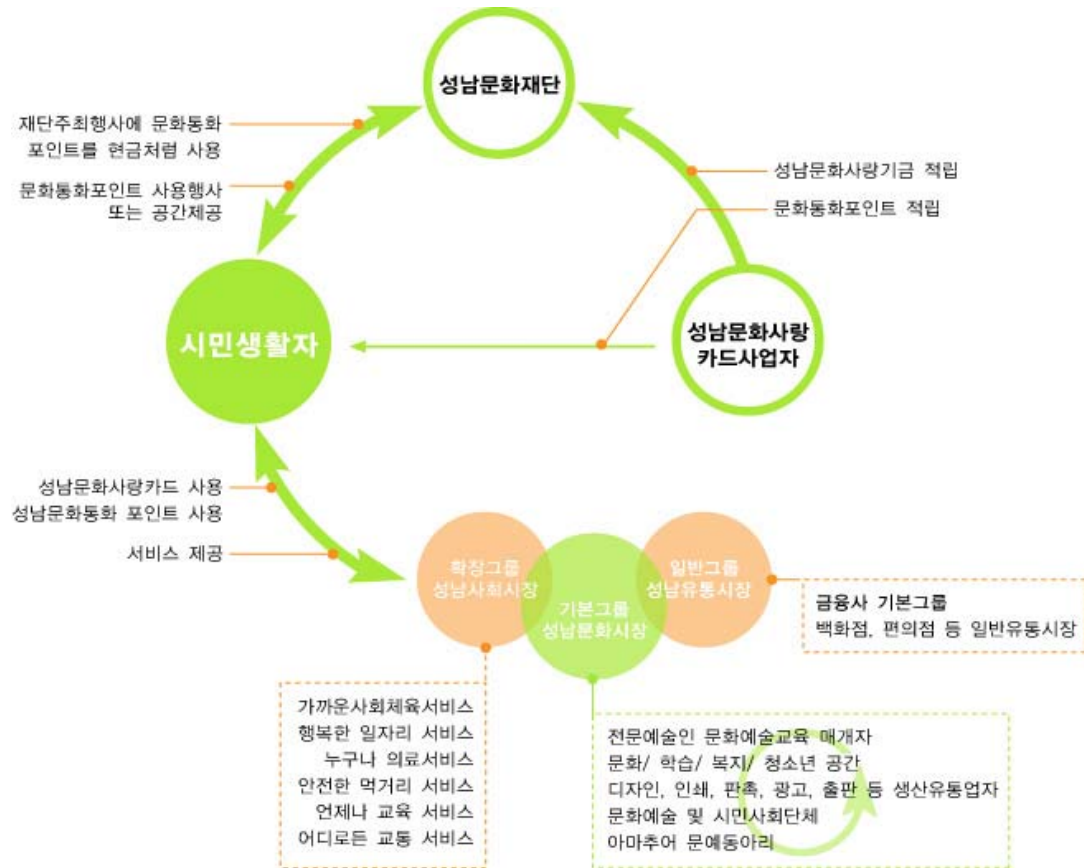


그림 12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개념도

5-3-2 기본흐름도(안)

* 사업 흐름은 번호 순에 따라 진행



그림 1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사업 흐름도

5-3-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성남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창출
- 법정통화와 연계된 새로운 지역문화통화 시스템 개발 및 정착
- 문화도시 성남시 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 성남시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장 개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5-3-4 사업의 내용

- 성남문화사랑카드제-지역문화통화제 도입 및 운영계획과 성남시 제안
- 성남문화사랑카드제-지역문화통화제 운영조례 제정 성남시의회 건의
- 성남문화사랑카드도입에 관한 금융사와의 업무협정체결 및 운영시스템 개발
- 문화사랑카드와 문화통화 사용 가맹점 모집

- 문화사랑카드홍보 및 카드발급
- 문화사랑카드와 문화통화 거래실적 모니터링
- 문화통화포인트 활용 사업 개발 및 홍보
- 평가 및 환류

5-3-5 추진전략

- 초기 성남지역문화시장과 사회적 시장 형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와 성남시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
- 국가주도의 법정통화와 시민사회의 자생적 지역통화의 결합이 빚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문화생성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형성과 성남시의 문화재원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기회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정통화제도인 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시장 형성
- 점차 생태환경, 의료, 복지, 건강, 먹거리 등의 공공적 사회적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시장으로 확산

5-3-6 고려사항

- 성남시민사회의 합의와 성남시의 의지 필요
- 성남시의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사회 시민참여 유도
-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연동 모델 개발을 위한 철저한 준비

6. 성남문화통화 활성화 추진전략

6-1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쟁점

6-1-1 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민의식 미성숙

문화통화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매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순환율이 제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회주류적 질서와는 조금 다른 이념성을 가진 문화통화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법정통화보다 활용처의 부족과 사용의 불편함은 신입회원을 모집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회원확보와 회원관리를 위한 사무인력들의 수급이 용이치 않을 수 있다. 지역통화시스템을 일찍부터 도입해온 나라들에서도 교역수준이 단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20%의 회원이 거래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지극히 공통적인 현상이 자주 지적된다. 또한 성남과 같이 도시의 역사가 많지 않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지역에서는 회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일이 힘들 수 있으며, 생협과 같이 이미 서로를 돕는 데 익숙한 커뮤니티들의 경우 굳이 통화제도를 사용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6-1-2 적정 재원 규모 산정의 어려움

초기 단기간 내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공적 지원을 전제할 경우, 적정한 예산규모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통화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상점이나 중소기업, 공공문화센터 등을 통화의 활용처로 지정하고 세제혜택이나 플러스통화 계정에 대한 환급을 보장할 경우, 문화통화 회원들의 활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재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3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이론상으로 문화통화 거래에 관한 책임을 관련 당사자들이 지는 구조인데, 초기 가입 시 회원규약을 통해 교환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품질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공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문화통화사무국이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문화통화를 활용하여 관람하게 된 공연의 수준이 형편없거나 구입한 그림이 위작이어서 사건이 법정으로 갈 때까지 통화사무국이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다. 또한 거래상 조세법이나 복지법과의 충돌 문제는 장차 문화통화 순환율과 거래량이 많아질 경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통화를 활용해서 강의료를 법정화폐 가치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예술가에게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1-4 공공부문의 문화적 방향에 대한 개입과 거액 거래자의 시스템 장악 가능성

문화통화제에 대한 초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율적이고 다소 비제도적 성향의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정 예술장르나 향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매체로 통화를 공공부문에서 활용한다면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입에 대해 통화사용자들의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센티브제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전체 통화량의 50% 이상이 어떤 특정 단체가 가진 이념적 성향에 따라 운영된다면 공공부문의 개입과 유사한 거부감을 통화사용자들에게 줄 수 있다.

6-2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향

6-2-1 적정재원마련 및 현실적 운영계획 수립

문화통화의 초기정착과 순환을 제고, 그리고 거래량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보와 조직, 그리고 회원관리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통화제의 규모를 단계별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사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에 문화분야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차 교육적 문제, 주거 문제, 노동 문제, 육아 문제 등 기존 공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인데, 이를 각 단계별로 시행하고 연구평가하면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액션리서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문화통화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홍보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잠재적 회원인 시민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갖는 첫인상이 좌우될 수 있다. “돈은 커뮤니티다”는 식의 추상적 개념보다는 버스카드나 토큰, 게임머니처럼 이미 일상에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통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6-2-2 단계적 접근

성공적으로 정착한 세계 대부분의 지역통화단체들이 공통적인 경험은 초기 핵심 회원들의 의지와 활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성남문화통화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단체나 개인을 찾아내고, 이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문화통화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 회원들이 소진되기 전에 통화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지역 내 다양한 그룹들의 생성을 촉발하고 자원활동 인력의 확보와 공적지원에 의한 안정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단계에서는 교육, 육아, 의료, 사회체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기업 등을 연결하고 주민세 납부, 공공시설 이용 등 공공적 영역으로 거래품목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여러 대체 통화들 간의 합의된 운영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다른 나라의 지역통화운동이 시도했던 멀티레츠시스템과 같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칭 지역문화통화연대시스템

등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

6-2-3 성남시의 의지

이 보고에서에 제안된 성남문화통화의 성공적 정착은 성남시의 의지와 실천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진입을 꺼려하는 시민들에게 문화통화의 신뢰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일정의 지원을 약속한다면 통화제의 정착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러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문화통화로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볼 수 있는 문화적 상상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마츠다시나 영국 칼더데일이나 프롬과 같은 지방의회들이 지역통화를 지원 또는 시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여부에 따라 통화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6-2-4 성남문화재단의 주도적 역할

성남시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발의를 하고 시의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초기 정착을 주도할 역량있는 핵심적 단체가 필요한데 문화예술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미 성남청년대학과 같은 지역 단체들이 지역통화운영에 의지를 갖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사례로부터 아직 지역 통화와 같은 개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파괴되어버린 우리 현실에서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중재하는 중간자적 형태의 단체에서 양자를 조절하면서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할 구분	세부 내용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 시민, 문화예술단체, 지역 등 참여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전체 시스템 설계, 웹 기반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 문화통화 홍보 : 언론, 대중 대상 홍보, 문화예술계 참여 유도 - 회원 유치 및 관리 : 신규회원(개인, 단위거래등록소) 유치, 소식지, 웹진 발간, 회원 대상 이벤트 개최
중앙거래 등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 단위거래등록소 간 광역거래 관리 및 주선 : 거래 정보 교환 시스템 운영
문화통화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화에 대한 신뢰 기반 제공 - 문화통화 거래를 위한 회원 신용 정보 제공 : 거래기록 제공 - 현금 환전 : 환전 심의 및 현금 제공
공공의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자원 확보 - 단위거래등록소 활동 지원 : 거래등록 소프트웨어, 운영경비 일부 지원 - 재단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원의 동원 -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

[참고 문헌]

■ 논문

- 김형용,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9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2004
- 김해보,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 방안 연구], 2006
-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6
-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6

■ 단행본

- Jonathan Crol, 『LETS Act Locally; The Growth of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1997, 박용남 번역,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2003

■ 정기간행물

- <공동선> 통권 제36호 1~2월호(윤홍순)

■ 보고서

- 마즈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사회시장 형성에 관한 기본 조사연구],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내, 2006

■ 기타 자료

- 2007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출예산서와 사업계획서
- 광명시평생학습원, '일본 지역통화 연수보고서', 2003

■ 인터넷 사이트

- 한발레츠 <http://www.tjlets.or.kr>
- 미내사클럽 <http://www.herenow.co.kr>

■ 부 록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일시 : 2007. 1. 31. 14:00 ~ 18:00

장소 :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

정리 :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³⁵⁾

일시 : 2007. 1. 31. 14:00~18:00

장소 :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

정리 : 성남문화재단

사회 | 박승현



오늘은 편안하게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한 말씀씩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쟁점을 잡아서 격렬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무르익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충분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격의 없이 충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풍토는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기들이 몇 차례 있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3가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전효관 교수로부터 전체적인 도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다음으로 1318해피존 오일화 선생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성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지역에서 향후 어떻게 모델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안)을 강원재 부센터장에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면서 ‘도대체 문화통화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 내지는 어떤 장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 주민협동조합 차원에서 아이들과 장터를 열면서 그 속에서 교환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성남지역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려고 예전부터 준비를 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통화에 대한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도들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끄집어내 보고, 이것이 성남 전체 시민들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시작을 해 보죠.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속기로 전부 기록되어서 끝나고 나면 오늘 발제한 내용과 함께 대화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화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리는 주소록은 대화록의 정확한 발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 직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 본 연구보고서에 담고 있는 상당의 내용들은 이 대화모임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되어있다.

시간은 지금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갖도록 하고, 6시가 끝나자마자 간단한 식사와 와인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안녕하세요, 성남문화만들기에 장동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통화라는 것이 유통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문화통화를 어떻게 해야 취득하게 되는지를 여쭙보겠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여쭙보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고, 아까 모람아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여개념인지 주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30술을 준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경위라든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가서 ‘산다’ 라고 하면 차라리 현찰로 주고 받는 것이 편한 것이니까 사실 문화통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취득하게 되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모델들의 주체들이 다르죠. 첫 번째 같은 경우 성남문화재단에 재원이 있는 겁니다. 모람아지트 사례하고 비슷한 것인데, 모람아지트에서도 이 ‘술’ 이란 것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때 그 현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금과 SK기금이란 것이 있고, 이것을 ‘술’ 로 대체해 주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남문화재단에 일정기금이 있고 이것을 통화로 대체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문화통화를 얻으려면 가령 내가 현금을 주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아닙니다. 통화가 나가면 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그러니까 그 통화를 주민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냐 것입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통화는 온라인시스템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성남문화원 | **김정진** 주민이 문화통화를 얻으려면 통화발행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발행기관이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통화발행기간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제가 문화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어딘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원 | **김정진** 그러니까 그 통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서현역 번영회라든지 성남예총이라든지 이런 발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그 통화가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을 ‘민간이나, 재단이 주도로 하느냐’ 그 논의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행기관이 있어야만 문화통화가 ‘술’ 이 될지 무슨 이름이 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저는 발행기간을 여쭙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어떻게 문화통화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전효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2모델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민간중심의 ‘마을 만들기’ 나 ‘지역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기금은 뭐가 있나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문화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동네 축제 만들기, 이런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사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한도액 안에서 주민 조직이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돈의 소스는 문화재단의 사업내역에 잡혀있는 예산을 이용하여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1, 2 모델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해 보면, A마을의 통화를 관리하는 곳에서 ‘동네마을 만들기’ 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통화로 지급이 되면 그 안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예술가, 그 다음에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통화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네 단위에 500만원이라는 통화단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 통화를 발행하는 근접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통화가 넘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사회 | **박승현**

그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문화통화에 대한 전제가 아직은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통화는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한정된 형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접근을 하자면, 원래 지역통화의 개념은 누구나 스스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례로 들은 1318해피존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15명 있다면, 해피존의 15명은 자기가 스스로 ‘술’ 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술’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술 줄게’, ‘내가 10술 줄게’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하게 발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통화는 개인이 발행의 주체가 되어 무한하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고마움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 받은 것을 ‘아, 내가 정말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10술 줄게’ 라고 일단은 환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그것이 돈과 ‘같다’ 는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누구나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통화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발행한 것과 쓴 것의 수 개념을 서로 소통시키면서 지역통화를 자기 것으로 축적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기자재를 산다든지 현금화시키는 계기로 접목을 시켜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의 경우가 사실은 지역통화라고 하는 원래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환전에까지 발전하게 된 유형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또 하나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만약 성남문화재단이 문화클럽에게 문화통화를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문화클럽에게 ‘300문화통화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해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문화클럽은 통장에 들어있는 300문화통화를 가지고 문화공간을 빌린다든지 어떤 발표

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클럽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말한 것은 개인이 발행할 수 있고,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지역통화의 원래 취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발행기관이 따로 있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한정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먼저 주면서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쓰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통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방식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단체에서 아트센터를 빌려 쓰면서 문화통화를 아트센터에 지불하고 실제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문화통화를 가지고 와서 공연을 관람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은 그 통화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에서 한 단체에 300만 문화통화를 지원해서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때 이것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추측해 보았을 때, 과연 일반주민들이 문화통화를 가지고 공연장으로 직접 보러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을 여쭙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환전해서 문화통화를 바꾼다던가, 아까 모람아지트 같은 경우는 떡볶이도 팔고 한 술에 떡볶이 하나고 비빔밥도 팔고 하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이 가서 사려면 모람아지트에 가서 현금을 솔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은 현금으로 지역통화를 바꿔야 통화를 시작할 수 있고,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통화라는 것으로 내가 문화관람을 하려고 하면 내가 현금 1만원을 주고 문화통화라는 것을 1장 사서 그것을 다시 보러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도 일반한테 그냥 다 뉘출 수도 없는 것이고, 현금 주고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통화권 한 장이 1만원의 가치가 있으면 현찰 주고 1만원을 내면 9500에 한 장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도서상품권처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전체적으로 문화통화를 발행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일종의 중산층 이상은 문화를 많이 즐기는데, 아까 성남의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판교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드셨는데, 사실 본시가지인 중원구나 수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조차도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성남시 전체가 골고루 지역통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통의 범위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문화통화를 왜 유통시켜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전호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데, 지금 그 질문이 나오시는 배경에는 주민들이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하자센터에서 근무할 때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카드 결제·발급 연구’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SK와 같은 기업에서 나오는 카드와 유사한 청소년 문화카드를 만들어 아이들이 세종문화회관을 가면 공연을 싸게 보는 등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대략 3천억 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SK와 같은 기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료에 붙여서 그 돈을 빼서



서비스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에서 3천억을 빼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할인혜택을 주자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연구를 하다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기관인 세종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 몇몇 곳에서 ‘할인권을 주자’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성남시 차원에서 통화를 발행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모델을 개발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어떤 주체가 가능하다면 지역단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각 직능별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생협을 하시는 분, 교육을 하시는 분,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 내에 어린이 교육문제를 갖고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망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역단위의 어떤 주체가 있고, 서비스망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동네 축제를 만드는 일에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500만 원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통화의 액수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내 교환활동을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들이 성남 내에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다면 지역적으로 보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이 3모델도 마찬가지로 2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남대에 있는데 전남대에서 월급을 받지만 돈을 쓰는 곳은 서울에서 많이 씩니다.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와서 아파트 값을 내고, 친구들과 서울에서 술도 먹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내에 연계망 같은 것이 구축되면 지역 내 자원이 그 지역 내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모델로 말씀드리면, 3모델의 가장 큰 효과는 성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성남 내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인센티브 설계를 하면, 예를 들면 주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굳이 예술의 전당을 가느니 성남아트센터로 가자’ 이런 선택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서 지역으로 오면 지역단위에서 서로 간에 있는 지역 내 잠재자원들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슨 미술교육을 받는데 10만원을 내고 홍선생 미술학원을 보내지만, 지역 내 주부들의 자원 풀(pool)만 발굴을 해도 지역내 미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상호부조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역 내에서 설계가 되면서 지역 내의 자원이 유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집 부모가 내집 아이에게 미술교육을 시켜주면 나는 그 아이에게 병원치료를 해 줄 수 있다든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문화참여를 하기 위해 오페라하우스에 와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에 부딪치느냐 하면, 성남시가 오페라하우스를 무료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무료쿠폰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정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근거지 단위로 상호부조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드는 것이 2모델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4동에 사는 주민들이 축제 하나를 만들어보는 것하고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보는 것하고 이 문제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문제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2모델을 발제하면서 마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정해 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을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단위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이것이 활성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모델의 고민 중에 하나는 지역 내 주체는 동네 주체든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시나 문화재단의 의지만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모델을 시작할 때 이미 이런 사전학습경험이 있는 몇 개의 시범동네에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통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정화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지역통화 본래 의미와는 떨어진 것이라도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되면서 그 성과들이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향수권을 확 높이고, 성남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통화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설정에서는 조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 **김용익**



경원대학교 김용익입니다.

저도 관심은 많지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전에도 자료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전효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하고 보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통화라는 단어하고 문화통화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두 단어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통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문화통화를 말씀하시는데, 문화통화는 좀 더 단위가 크고 진짜 오페라하우스의 모든 공연을 보는데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지역통화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쿠폰식이라고 하나요, 품앗이라고 하나요, 자급자족식으로 돌

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돈 대신. 그래서 지금 ‘지역통화’, ‘문화통화’ 이 두 단어가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데서 오는 혼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 바는 그런데, 맞습니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우선 1모델 갖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통화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2모델은 지역통화 모델입니다. 실제 상호부조와 지역공동체들, 거기에서 실제 발행주체들도 그 지역민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모델은 문화재단에서 일정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통화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는 데, 전체적으로 1, 2, 3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누구로부터 받습니다. 문화통화는 우리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돈 대신 문화통화를 받는다는가,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탄천에 가서 휴지 몇 장을 주워서 문화통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도 우리같이 문화통화를 직접 사용하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문화통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처음 드린 질문입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그 이야기가 1모델과 2모델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모델은



문화재단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민들까지 가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아까 처음에 1모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문화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다. 그래서 문화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 한계로 주어지는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2모델로 갔을 때는 이것은 지역통화모델, 이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모델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상호부조를 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들을 하고 거기에서 통화를 받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초기에는 지역범위들을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수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통용되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 안에 기입을 하고, 그 기입된 것을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지역통화의 방식들을 온라인으로만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처음에 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만약 선생님한테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어깨를 주물러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한테 1만 통화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1만 통화가 되고 저는 +1만 통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1만 통화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깨 주무름을 받고 1만 통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0통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1만 통화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뢰기반이기 때문에 만

약에 마이너스가 100만 통화 된 사람한테 계속해서 통화를 지급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비스 거래를 맺기 어려워질 겁니다. 선생님하고 거래하는 것을 꺼려하겠죠. 그러나 선생님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신뢰와 어떤 상호부조를 촉진하는 것들이 2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 **박승현**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기를 위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자원봉사센터 | **조은주**



강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3모델이 저희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부터 모임을 가져서 이 문화통화라는 개념이해부터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자신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문화재단에서 그 모임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통화를 통해서 어떤 나눔에 대한 대가를 서로 간에 지불하자, 일단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간에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통화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자 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원봉사도 있는데 왜 문화통화라는 것도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갈까

라는 어떤 의문도 상당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일단 저희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어떤 인정이나 보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이나 보상측면에 통화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과 나눔을 기본전제로 이 통화를 바라보셔야 되지, 어떤 경제관념이나 경제이론에 맞춰서 이 통화이론을 해석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눔을 기본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나눔을 기본전제로 다른 단체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먼저 찾고 그 교환의 가치를 A와 B가 정의해 나가는 것이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를 통해서, 문화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눔의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자 하시는 어떤 시민이나 단체든 다 이 문화통화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문화로 어떤 통화를 해 보자’,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임 있을 때 노재천 국장님이나 박승현 부장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것이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너무 시스템적으로 다가가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어서 본래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퇴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 | **김정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논의의 구조와 원칙이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이 지역통화라는 개념하고 문화통화라는 개념하고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상가변영회라든지 재래시장연합회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통화개념은 우리가 지역통화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성남문화통화에 과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그 논의를 좀더 구체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가자분들께서 오늘 처음 오셔서 사실 통화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지역통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타입들로 했던 것들은 제외를 해 놓고,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통화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박승헌**

다음 하동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성남문화연대 | **하동근**

통화가 사용되는 곳이 바로 시장일텐데, 시장과 통화를 분리하다보니 상당한 오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장이 분명히 있고 지역시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장과 지역시장은 법정통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최고의 상품이 유통되는 곳이고, 최고가 아니면 유지되지 못합니다. 법정통화로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지역문화시장에서도 지역성이라든지 지역을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은 유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시장을 지배하는 법정통화를 좀 유보시키고 대안적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318해피존에서 통화가 됐든, 성남지역에 지역이나 문화통화가 됐든 간에 분명히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제를 보니까 '어떤 모델이 좋냐' 이런 질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길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통화와 지역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던 구조를 사회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법정통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이 우리의 일상까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를 바꿈으로 해서 시장의 성격을 바꿔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상품만 통용되고 세계 최고만 공연되는 이런 지역문화시장에 지역성을 갖는 문화상품도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세계통화가 지배하는 시장질서가 아니라 지역문화통화가 지배하는 질서라야 공동체성을 갖는 문화상품도 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수 있는 지역의 시장을 화폐 하나 바꿈으로 해서 시장구조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화의 신용창출을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는 교육적이고 학생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조직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도덕이 상품이 되고, 그래서 '착한 일 했다. 한 솔 준다' 이런 것입니다. 또 교육효과가 뛰어났다면 이것이 바로 교육상품이 되고 거래되는, 솔로 그것이 교환되는, 거래되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냈는데, 신용의 창출구조를 어떤 권력이, 성남시면 성남시, 성남의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이 권력을 갖고 그 신용을 담보해 준다면 그것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의미대로 한다면 성남에서 어떤 모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신용창출

을 민간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모델보다는 2모델이 지역.문화통화로서의 자기 가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원래 화폐는 우리가 물물교환을 없애기 위해서 물건과 물건의 교환매개로서 화폐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인류학에서 보면 국가의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어 냈다고 나옵니다. 세금을 내서 세금이 받아들여지고 하니까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의 신용이 창출됐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재단이 중심에 서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1모델이 좋고, 지역.문화통화의 성격이 제대로 가게 하자는 이념성을 생각한다면 2모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 2, 3모델이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자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모델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2모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모델이 사회 여론을 완전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이 지역에 어떤 여론이 만들어진 것을 기본으로 해서 3모델인 신용카드,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순서대로 간다고 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1모델을 먼저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통화가 활성화 되면 시장의 성격이 확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장의 법정화폐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균질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생산에서 나온 것에는 균질화해서 가격표가 매겨지는 것, 시장이 자동으로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상품이라는 것은 균질화 되기에는 될 수 없는 구조를 상품 스스로가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통화가 활성화 되면 상품의 균질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오페라가 공연되기도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상품의 가치라는 것이 법정화폐로 균질화된, 규격화된 가격매김이 아니라 불균등한 구조, 예컨대 제가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 교환되는 구조를 잠깐 구경했었는데, '나 술 하나만 줘' 그러니까 준 사람의 통장을 보니까 구걸해서 줬다' 그래서 교환이 구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완전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아주 소수자들의 특징도 살려줄 수 있고 아주 인간적인 시장이 마련되는데, 아마 경제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장구조가 깨진 것이 19세기 중반부터 깨진다고 합니다. 그 시장이 이미 세계를 지배해 버리다 보니까 국가도 FTA 지금 통제 못하지 않습니까. 세계시장이 완전히 일원화되는 구조로 되다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일상생활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계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어주면 어떤 소수자의 권리나 문화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아주 공동체적인 시장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문화를 생산하는 동호인 그룹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고, 저도 지역에 문화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화를 생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문화통화가 지배하는 문화시장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문화생산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문화를 생산해 놓고도 소비를 시켜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문화통화가 그 시장을 만들어 낸다면 이게 문화생산자들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향유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장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 매개, 향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시장경제구조를 문화에다가 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만들고 문화생산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문화소비자들의 조건도 향상되고, 문화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소비한 문화상품이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아까 1%를 직접 지원한다면, 그래서 소비가 생산을 바로 응원해 주고 소비가 생산을 유도해 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문화통화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실천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아까 강원재님께서 나름대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남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 선생님은 성남의 의료 생협도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킹에 하나 켜는데, 사실 성남에서 의료생협은 아직 준비중입니다. 지금 추진위가 다음 달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가능한 구조들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고, 성남의 정치상황까지를 조건으로 다 집어넣어서 해 본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 박승현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의회 | 김해숙

성남시 시의원 김해숙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목도 잘 모르면서 시도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주민 생활협동조합’ 이라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라는 열다섯 가족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의 장기자랑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같이 놀거나 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그러면서 지금은 생협 속에서 문화마

당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뜻을 같이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실은 한 달에 1~2만원에서 그런 수업이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면서 사실 이런 지역통화라든가 문화통화 이런 것을 고민했지만 사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는 몰라서 계속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 하고 나름대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3모델에 대한 고민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범위가 넓혀지면서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3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계속 필요로 하면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문화재단에서 좀더 가지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어떤 제도든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접목되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계별로 어떤 것이 지금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서 시작하여 점점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3모델도 해 보면 좋겠지만 문화로써 그런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1모델로 해서 단계별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조합원도 여기에 5천명 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실 모든 것을 지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큼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주를 내놓는 사람도 그냥 무료봉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가치를 살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네, 김용익 선생님 말씀하시죠.

경원대학교 | **김용익**

또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동근 선생님 말씀 정말 이해가 잘 됐습니다. 법정통화, 자본주의의 꽃인 법정통화로 인하여 노동상품이 됐든 일반상품이 됐든 균질화 돼 버리고 매끈하게 개념화 돼 버리는 상품시장에 이질감을 만들자는 거죠. 부등가 교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좋은 말씀이고, 바로 이것이 지역통화의 본래 목적이고, 바로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화폐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숨구멍을 내자는 그런 의미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지역통화와 문화통화가 다른 것인데 지금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또 조금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통화인데 지역에서의 문화행사에 지역통화를 쓰자’ 그러다 보니 지역통화와 문화통화란 말이 혼용되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우리마을 문화공동체 만들기’ 라는 프로그램에 법정통화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역통화를 문화통화로 작은 지역 안에서 활용하려면 창조와 매개와 향수라고 하는 순환고리가 그 지역 안에서 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매개와 향수까지는 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부분에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 작은 커뮤니티 안에 문화창조자가 부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외부사람이 와서 지역통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분께 적정한 다른 법정통화로 보상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보완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이 사업을 시

행한다면, 예를 들어 2007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태평2동이 됐든 금광1동이 됐든 지역통화, 문화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동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1모델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너무 많죠. 한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모델을 했을 경우 법정통화가 가지는 개념적이고 균질화시키는데 분명히 이질성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기 쉬운 1모델부터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 박승현 다음은 전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황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스벤처라에서 실제 작업하시면서 느꼈던 말씀을 잠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전효관 저 개인도 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사실 1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 애가 로봇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펴보니까 애들과 놀이 만드는 것을 해 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좋은 업체가 있나’ 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애랑 놀아주는 것까지 돈을 내고 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한번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아파트에 뜻이 통하는 사람 열 집만 있으면 로봇 놀이는 저쪽 집에 가서 하고, 애들이 보면 좋을 비디오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애들 모아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친목도 다니고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저를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완전히 100% 소비 의존적으로 포획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통화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자발성 같은 것들을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통화하고 문화통화 구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통화하고 문화통화는 지금 같은 추상 수준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통화나 문화통화는 공통적으로 대안적인 통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룬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역에서 통용되는 문화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문화통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떤 대안적인 화폐운동이라는 것에 큰 범주가 있으면 문화통화라는 부분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모델을 개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추진을 할 때 지역통화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약간씩의 변형이 있다.

그래서 일부의 장점을 취하면서, 저희가 주말마다 서너 번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할 때도 연구진 내부에서도 격렬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어떤 현실성의 원칙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도입 초기에는 법정화폐와의 교환기능이 없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 선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법정통화라는 것이 교환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돈으로 주지 뭐하러 통화라는 것을 발행해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가’ 그런데,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부분적인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거래빈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진화해 가는 것들이 정책모델로써, 예를 들면 공동체가 추진하는 정책모델이 아니고 운동의 일환으로써 하는 모델이라면 조금 다른 순번을 취할 수가 있는데, 정책모델로써 채택을 하려면 성남문

화재단의 어떤 사업과 연계되면서 약간의 교환기능을 설정하는 것부터 출발해 보면 좋겠다. 만약 이것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런 것에도 적용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성남문화재단이 또 사업을 개발하든지 그 안에서 통화체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재화 화폐로 묶는 서포트 기능을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불균등하고 이렇게 딱 모델이 있어서 주체가 할 일이 있고 하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 가능한 조건에서 출발하면서 각각의 노력들을 인큐베이팅 한다고 할까 블레싱 한다고 할까, 이런 단계의 문제 위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개념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물건, 성남시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언어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이 촉진돼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이것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연구작업을 제안 받았을 때 ‘사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데 무슨 이것을 연구작업을 하나?’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것은 의지를 모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꼭 연구모델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1모델이든 2모델이든 도입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문화통화와 다른 데서 사용되는 통화는 어떻게 교환을 할까’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형성과정은 사실 통화의 도입과정과 거의 일치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사회 | 박승현

예, 황정주 지부장님 말씀하시죠.

성남민예총 | 황정주

성남민예총 지부장 황정주입니다.



아까 김용익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실감이 가고 공감도 됐던 것이, 저희도 지난번에 같이 태평4동 마을공동체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1모델, 2모델, 3모델을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화통화 관련해서 일본연수도 함께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통화와 문화통화 개념의 차이, 문화통화를 성남지역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현실 가능성의 문제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언뜻 2모델이 제일 모범답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평4동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실제로 전효관 교수님 말씀하셨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정성과 품

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벽화 미술관을 하는데 저희는 지역작가들이 태평4동에 살고 있는 작가들, 태평4동 인근에 살고 있는 작가들이 다 결합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 지역의 우리가 하는 공동체를 지역주민의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인으로 참여해서 같이 함께 창조하고 향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일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318해피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민예총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동의 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그 사업이 참 쉽다. 예를 들면 민예총과 지역아동센터와 1:1 품앗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역공부방이나 지역 저소득 아이들에게 왔다갔다하는 사업, 그리고 작년에 인권영화제 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1:1 품앗이 사업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민예총에서 충분히 재정적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다 부담하면까지도 그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와 요구가 같은 집단 안에서는 그 자체 내에 어떤 품앗이나 지역통화, 문화통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문화공동체 주민협의체마을통화사무국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통화는 물질과 물질이 오고갑니다. 누구는 미술 할 줄 알고 누구는 춤을 할 줄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미술을 가르쳐 주니까 너가 그 대신 춤을 가르쳐 줘라' 예를 들면 지역통화라고 따지면 물질과 물질 구체적인 것들이 다 가는 것이 지역통화라고 한다면, 문화통화는 추상적이고 약간 관념화된, 그리고 우리 관념 속에서는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지역에서의 하나의 문화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조그만 동질의식이 같은 그런 집단 안에서의 교류통화를 하는 것이 문화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 동의 지역사회, 태평4동이면 태평4동, 수진동이면 수진동, 그 동 안에서의 문화통화들이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문화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모델을 하기에는 우리의 준비정도가 더 많은 정성과 품, 시행착오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전단계로 해서 1단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매개로 한 클럽 동호회 30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들의 교감이나 소통의 과정,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정서적 공감대에서 제일 좋은 것은 공동체성, 나눔, 뭔가 서로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것이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318해피존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뛰어넘어서 성남에서 문화통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과정에,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2단계를 가는데 그 전단계로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통화, 그리고

문화통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어쩌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성남시, 구청, 동사무소 이런 공공 기관들의 지원과 지원이라는 것이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인드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해보자고 하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실 문화통화 사무국을 예충이 한다, 또는 민예충이 한다,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가 한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역의 마인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치센터, 동사무소, 구청 이런 곳들과의 협력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평4동 마을공동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될 수 있었던 데는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도 같이 독려하고 시도 같이 독려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기간은 성남에서 문화재단이 이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일정정도 그 책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가장 모범인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통화가 되기 직전까지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1단계의 문화재단이 여기서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한 문화통화의 모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역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들을 밟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시지원봉사센터 | **조은주** 잠시 제가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문화통화의 기본원리가 나눔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zero-sum 게임이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정말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신은 나눔과 협동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이루어진다, 서로 간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니’ 를 계속 따져 가면 솔직히 통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것은 이미 우리 법정통화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나눔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에이스벤츄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쪽에 권태록 팀장님 계시는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노현 교수님께서도 한국학 쪽에서 바라보시는 입장도 들겠습니다.

에이스벤츄라 | **노재정**



저희는 아이들과 실행을 하면서 사실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통화개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장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실행하고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아이들한테 문화통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훨씬 더 그 개념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않고 훨씬 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눔이나 서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들이나 서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낸다는 것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그 과정에 들어오면서 문화통화를 상점이나 별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로서 나타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써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들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 속에서 이 문화통화가 실제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많이 보게 됐는데, 문화통화는 결국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획하기로는 내부에서 어떤 가치,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들, 교육적인 가치를 이해시키고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를 애초에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오셔서 마지막에 공개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눔의 가치들을 서로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어! 너희들 솔 운영하고 있구나. 이 솔이 뭐니?’ 라고 그 정도까지 었는데, 실제로 그 솔을 외부에서 선생님들은 ‘이것을 던주고 사야 돼?’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통화로 획득되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인데 오히려 어른들이 가면 낫설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들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 촉진해 나가고 만들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꼭 뭔가 법정화폐의 대안이나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교육적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속에서 문화적인 성장 혹은 문화적인 혜택들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교육을 하러 나갔을 때 스스로 경험치를 획득하고 어른들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하는 좋은 매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문화통화가 성남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문화통화 교육이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에서 다른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청소년들 문제나 혹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으로서 문화통화가 조성된다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 박승현

예, 고맙습니다. 권태록 팀장님 말씀하시죠.

성남사회복지협의회 | 권태록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권태록입니다.

저희 복지 쪽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지역화폐운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지역 안에서 합의된 신뢰를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문화화폐를 과연 운동적 성격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들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해서 지금 보면 공동체 안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 로컬이나 커뮤니티로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가령 같은 것을 공유하는 단체나 집단에서 규율로서 제정이 되어진다면 합의된 규율로서 하게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합의를 시켜주느냐, 과연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서로 교환한다는 것, 문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매개체로 문화통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문화통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넓게는 성남시민이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들을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에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모델에서는 동아리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지역통화라고 하는 것은 환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꾸 돈이라는 개념이 와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시민활동으로 갔을 때는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환가개념이 생기게 되고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의 정책 입안자들이 먼저 결정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2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운동 또는 문화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2모델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모델인데, 2모델은 경험적으로 보면 문화나 일반화됐던 그런 모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통용이 되고 가치가 환가가 되는데, 문화라는 것은 또 소수에 집중될 수도 있고, 지역적 범위가 4동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구 전체를 따져 봐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더 결정할 부분들은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의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박승현

고맙습니다.

지금 에이스벤처라와 함께 우리 1318에서 라디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술’을 실제로 나누었던 통장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보시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통장을 어떻게 사용했나’ 거기에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돌려 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노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노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장노현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새로운 분야를 많이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문화통화나 지역통화 같은 것들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 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문화통화나 지역통화의 의의가 교육적인 측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연대 하동근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잡아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잡아냈는데, 지금 여기 성남시나 또는 지역에서 영위되고 있는 지역통화나 문화통화가 어떤 수준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세팅이 좀 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의 사례에 훨씬 더 가깝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들으면서 2가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제시된 1모델을 먼저 실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심화시켜서 2모델로 넘어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하동근대표 같은 경우는 1모델보다는 2모델 쪽에 무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관 주도나 중앙의 집중된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산해 나가는 쪽에 비중을 뒀서 문화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정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하동근 대표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더 쉽게 말한다면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 같은 소그룹에서 문화통화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소그룹들이 수백 개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비슷한 소그룹들을 엮어서 좀더 큰 단위로 엮어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트러블이 없게 전체 큰 단위의 성남 문화통화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기획 하에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지 못했던 오류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1318해피존 같은 사례가 소그룹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비중을 뒀서 실천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 박승현

고맙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시고, 김기봉 팀장님 다음에 이상훈 실장님,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정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김정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아까 ‘환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급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줬든지 받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랄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환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그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현재 잔고가 10솔이다 그러면 10솔이 1만원이다, 이렇게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의 잔고가 아니라 거래가 꾸준히 일어났던 거래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가중치를 뒀서 최종 남은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 | 박승현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팀장님 말씀하시죠.

정자청소년수련관 | 김기봉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김기봉입니다.



저는 이 나눔통장을 보면서 ‘따뜻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결석하면 -5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영화작업을 하면 모이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일찍 온 친구들 오죠, ‘조금 이따 갈게’ 하고 도착하는 친구, 늦게 오는 친구 1시간 반 걸립니다. 이럴 때 어떠한 제제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지 싸웁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우리가 헛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던져주면 놀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하자에서 했던 ‘틴틴 이코노미’ 라든가 성미산학교에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상거래... 이런 교육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될 것이고, 경제교육이 될 것이고, 또 나눔 교육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저는 돌아가서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일정부분 아이들의 원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실천모델이라고 한다는 거시적으로 보았던 모델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하고 접할 때는 재미 삼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1:1통화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산되어서 이런 것들이 제반 기반이 됐을 때 그때 정책을 논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천 실천’ 얘기하는데 내일부터 실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박승현

예, 이상훈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 | 이상훈

미디어공동체 늘봄에 있는 이상훈입니다.

아까 발제 들으면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냈던 토큰, 회수권부터 TTL카드 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1모델, 2모델, 3모델을 보면서 지금 성남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버스나 이런 것이 많지 않은데 토큰부터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이런 문화통화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체들을 잘 세워놓고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세워놔야 그 다음에 통화가 활성화되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1모델에 있는 목적 자체에, 우리 문화클럽의 활성화라든가 문화클럽간의 교류, 소통 이런 것이 오히려 성남에서는 문화적 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거기에 많이 맞춰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통화 정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교통량이 많아지고 해서 토큰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카드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튼 이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만약 사진 동아리에서 문화통화를 얻었는데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름인지, 아니면 현상하는데 드는 비용이랄지, 아니면 전시하는데 액자를 사야 된다면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될 텐데, 문화통화로서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전시관 정도라든가 이렇게 사용이 많이 한정될 텐데 과연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몇 가지 과제가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넘기겠습니다.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 김미정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였고 사실 그 전에 통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 선생님이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같이 확대시켜서 뭔가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을 때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듣기에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2가지 갈래로 나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 통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생소했고 나중에는 ‘이게 뭐지?’ 관심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역문화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차적인 공감할 수 있는 단위부터 교육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고 덤빌 때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일을 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갈래는 민예총 지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능할 수 있는 단위들, 아까 한국학 교수님 생각과 비슷한데, 가능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자꾸 그런 통화를 유통시켜내는, 아니면 통화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눔이나 공동체성이 기반이 되어야만 통화의 유통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획, 이런 사례들을 이미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처럼 한 공간으로 공동체라는 것이 묶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다른 물적 토대만 가지고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유형화되어져서 사례관리를 해서 그것들을 모델링화 시켜내다 보면 나중에 이것들을 엮어나가는 작업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지역문화 통화의 작업은 이 지역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 박승현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장순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세 분의 선생님들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고, 노재천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청년대학 | **우정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한가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은 통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인지는 몰라도 돈 문제가 걸려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이 많이 난처한데, 사실 지역단체에서 활동도 하면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토론도 몇 번 했는데 결론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문화재단에서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 여기 계신 단체분들은 적어도 단체활동을 하면서 아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나눔과 소통의 문제, 그런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것이 활동의 이유, 내지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 2모델이 어쨌든 간에 가장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체형성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만들어내고 발견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발굴하고 찾아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모델을 어떻게 하면 2모델로 전환시켜낼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가치를 갖는 모델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모델의 문화클럽으로만 한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있는 이런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활동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뭔가 시범사업화 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과 활동들이 근본이 돼서 더 나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전남대문화전대대학원 | **전효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고, 몇 분들이 ‘운동이나, 정책이나’ ‘민간주도나, 공적조직 주도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정말 민간베이스는 자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공적자원은 사람들이 공적 조직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아서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배타적인 것이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핵심이고 문화통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데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출발은 운동입니다. 운동이지만, 운동과 정책이 결합되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상쇄할 만한 효과를 만들어가면서 운동과 정책의 접합모델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문화통화라는 것이 사실 성공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출발은 각각의 지점들이 조금은 다르게 출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이들 얘기할 때 갑자기 생각났던 것이 작년인가 미술 하시는 박찬국 선생님이 광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놀이규칙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참관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놀이규칙을 만든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말로는 잘 못하지만 쓱쓱쓱 그려서 그냥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초등학교 애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사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현실의 무게에 들어와 있

어서 그런데, 만약 현실의 무게를 떠나서 내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어떤 합의가 모아지는 과정들과 병행해서 가는데 정책이 조금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발에 맞춰서 가는 일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런 논의 테이블 같은 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발걸음이 앞서 나갔을 때는 조금 뒤로 당기고 뒤에 있을 때는 조금 앞으로 당기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대화모임의 의미일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실현과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저는 ‘오늘 이 자리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통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것이고, 계속 이런 자리들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통화운동들이 그동안 실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정착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산되어 나간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거기에서 민과 관이 잘 만나면 서로가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면서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서로가 약간 배타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주도를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지역통화나 문화통화 협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통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괜찮은 지자체의 새로운 문화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오일화 선생님 말씀하시고 노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자 정석준 과장 인사하시고 한 말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8해피존 모람아지트 | **오일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는 기타를 치고 누구는 드럼을 치고 즐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모임이 음악을 하고 있는 동호회이기는 하지만 그 모임이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타를 좋아한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모임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구성원간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느냐 하는 관계방식에 의해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눔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저금통장에 많이 저금된 솔이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로 환원할 만한 자신의 가치라는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그들을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생산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1318공간에서 아이들과 확인한 것이 저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같이 합시다’ 라고 운동적 차원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운동은 안 하고 정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같이 운동을 해 봅시다. 즐겁게 놀아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남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화이고, 이것은 돈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 없는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통화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김낙중 기자님, 취재만 하시지 말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일보 | 김낙중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강원재 선생님께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발제하시는 도중에 2모델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용역과제 수행하시면서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모델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모델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작업들이 진척됐고 어떤 성과들을 남기고 있는지, 지금 ing 중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그 이후에는 2모델을 가지고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으로 보였던 것이 광명지역이 보였었고, 그래서 광명지역에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방식까지 연구작업이 진행됐던 거죠. 그 이후에는 실은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것이 실행모델로 넘어갈 때 문제는 광역단위에서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방금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에 주체가 없는 한은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남일보 | 김낙중



그것을 박승현 부장님이 문화통화, 이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90년도에 지역 시민모임에서 지역통화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취재했었고, 그런 정보들을 주면서 그때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 문화통화 사업들에 반면교사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이상훈 실장이나 청년대학에서도 그런 통화운동을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고, 자원들이 어떤 자원들이 있고 서로 가치를 등가로 할지 부등가로 할지의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평가하지 못했지만, 청년대학에 소개하고 있는 3천여 명의 동문들이라든지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운영해 볼 것인가, 자원발굴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시스템개발이라든지 이후 작업들을 진행 못하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수포로 돌아갔었고, 그런 지역에서 몇 차례 지역통

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켜보면서 아쉬운 것들은 1318존에서 최근에 운영했던 그런 사례들은 하나의 자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자그만 단체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2모델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통화운동들을 해 왔던 경험들,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이라든지 왜 실패를 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과연 그것이 주체가 없어서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 속에서 하동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등가나 부등가 떠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왔던 실제적인 평가들, 소중한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통화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사구시적으로 반영을 해야만 지역실정에 맞는 통화정책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런 것들이 가능해 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 | 박승현

끝으로 노재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 노재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문화정책 대화모임이라고 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오늘 의견들을 제가 아까 인사말씀 드리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들 모여져서 좋은 결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서 어느 분께서 ‘문화재단이 구심점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발제내용 중에서 1모델, 2모델, 3모델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사실 ‘이것 중에서 어느 모델이 좋습니까?’ 를 여쭙는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1모델, 2모델, 3모델로 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사례가 1, 2, 3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 사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차원에서 연구진들하고 의논했던 부분인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모델이 됐든 2모델이 됐든 3모델이 됐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에이스벤처라에서 지난번에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순박한 초등학생들이 느꼈던 그 느낌이, 사실 아까 돈하고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들려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제도를 도입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 새로운 환경이 소생되고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통화라는 것에서 나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로 갈 수 있는, 실패를 하더라도 문화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모임을 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저희 의견에 반영시킬 것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모델이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실행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후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키면서 실패사례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장시간 문화통화를 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여기에 모인 분들이 결국 성남의 문화통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나가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의 논의가 담겨서 대화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2월말에 여기 계신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 연구보고서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화모임을 한번 더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정책 대화모임을 이 주체만이 아니라 5대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며, 이 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성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뒤에 못 다한 이야기들을 간단한 음식들 나누면서 더 이야기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박수)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강원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iffree@activelearning.or.kr
권태록	성남사회복지협의회 팀장	rnjsxfhr@empal.com
김기봉	정자청소년수련관 팀장	mom21@dreamwiz.com
김미정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국장	aidlllove@hanmail.net
김세훈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	asco74@simc.or.kr
김용익	경원대학교 미술, 디자인학부 교수	profyongik@paran.com
김재순	에이스벤처라 강사	r대222@naver.com
김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pan@aks.ac.kr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업부장	arts21@hanmail.net
김종대	성남문화만들기 대표	jedaik@hanmail.net
김지백	중부일보 기자	jbkim4746@hanmail.net
김지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kjy1124@ifac.or.kr
김지혁	ID분당 기자	marceljh@naver.com
김태진	성남의제21 사무국장	master@snag21.or.kr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전략기획팀	sea@sfac.or.kr
김해숙	성남시의회 시의원	haesook308@hanmail.net
남연숙	성남문화연대 간사	nys2802@dreamwiz.com
노재정	에이스벤처라 강사	njjeng@hanmail.net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littleg@snart.or.kr
류진형	성남예총 사무국장	artsroom@hanmail.net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parktutor@snart.or.kr
박영애	성남시의회 시의원	p4953@hanmail.net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moosim@hitel.net
송태환	수정청소년수련관 실장	sth0426@simc.or.kr
오일화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 책임실무자	tod1896@paran.com
우장순	성남청년대학 부회장	kw1989@empal.com
유순주	성남문화연대 운영위원	ekfl59@hanmail.net
이경구	수정구청 문화체육 담당	sy30lee@naver.com
이광우	함께여는 교육연구소 소장	1khbd@paran.com
이상훈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실장	lohuman@gmail.com
이승일	주민신탁 이사장	naksitu@hanmail.net
이제영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팀장	ijyoung@cans21.net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jd7771@snart.or.kr
이창문	뉴스리더 기자	
임승철	성남내일을 여는집 목사	jijaje21@hanmail.net
장노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jnohyun@aks.ac.kr
장동혁	성남문화만들기	captain-jj@hanmail.net
전효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9junk@hanmail.net
정경미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koungmi35@hanmail.net
정기영	성남시의회 시의원	jkykys@nate.com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정석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orgy7@paran.com
정용한	성남시의회 시의원	cjdan@hanmail.net
정인옥	주민생협	jucoop@chol.com
정현희	중원구청 문화체육 담당	sina@cans21.net
조은주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연구개발팀장	cej98@hanmail.net
조주현	디딤돌학교 교장	leo1968@empal.com
지관근	성남시의회 시의원	jikk5356@paran.com
최은정	중원문화정보센터 담당	ch2jay@simc.or.kr
표신중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eventstage@ggcf.or.kr
하동근	성남문화연대 공동대표	oradix@kfem.or.kr
한성심	성남시의회 시의원	hss1123@hanmail.net
황정주	성남민예총 지부장	frogjj@hanmail.net

문화통화 정책실천 TF연구진

책임연구원

전효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공동연구원

강원재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정석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연구보조원

우장순 (성남청년대학 부회장)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발행일	2007년 2월
발행인	이대엽 이종덕
기획	노재천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인쇄	
